



[뉴스] '노쇼 백신' 맞아보니
두통·피곤·오한 등
후유증 '개인차'
02



Economy

코스피	317.37 (0.00)	코스닥	967.20 (0.00)
금리(미국 3년)	1.158 (+0.009)	환율(원/달러)	1122.60 (-1.40) (4일)

택배물량 120% 폭증 단가인상 대타협 난제

'삼중고' 빠진 택배시장

택배가 우리들의 생활속으로 빠르게, 깊숙히 들어온 가운데 곳곳에서 난제를 만나고 있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덩달아 업체간 경쟁까지 격화되며 운반비가 추락해 결국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택배를 놓고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기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출입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기사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6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급성장 택배시장, 곳곳서 마찰음 단가하락 따른 서비스 저하 우려 '지상 차단' 입주민들과 줄다리기 택배사들, 연초부터 단가 인상에 사회적 논의기구 외부용역 의뢰

5일 물류업계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연간 14억 598만 박스였던 택배 물동량은 이후 빠르게 늘면서 2020년엔 33억 7373만개로 8년 동안 12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도 3조5232억원에서 7조4925억원으로 112.7% 늘었다.

반면 박스당 택배 평균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지난해엔 2221원으로 이 기간 11.4%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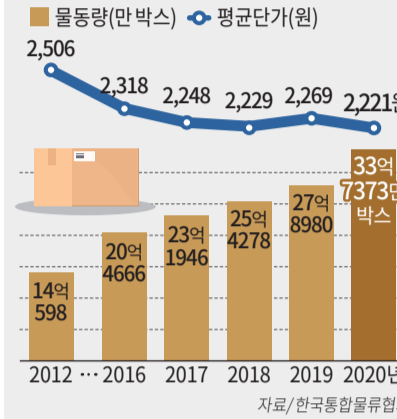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해에도 택배 평균단가는 1년전의 2269원보다 2.1% 떨어졌다.

경쟁 격화, 택배 단가 하락 등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우려한 택배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택배 단가 인상을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택배 매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고객(화주)들과 신규·재계약시 박스당 최저단가를 올리면서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박스당 최저단가를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인상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한진은 1800원, 롯데글로벌로지

택배 물동량·평균단가 추이



스는 19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복수의 물류회사 관계자는 "기업고객에 대한 최저단가 인상 조치는 택배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투자, 서비스 품질 개선, 택배 관련 종사자들의 적정 수입 보장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기업고객이란 이커머스 기업, 온라인 유통회사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택배 단가도 올랐다.

택배업계 3위권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가장 먼저 나서 지난 3월 15일부터 소형(5kg·110cm 이하), 중형(15kg·130cm 이하), 대형(25kg·160cm 이하) 택배비를 1000원씩 인상했다.

초소형(3kg·80cm이하), 소형(5kg·100cm이하), 중형(15kg·120cm이하), 대형(20kg·160cm이하)의 4단계로 된 한진은 초소형과 중·대형은 각각 1000원씩 올리고, 소형은 2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50.1%를 차지한 CJ대한통운은 개인택배 단가 인상은 당분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부,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택배 가격 인상 여부를 위한 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은 택배의 거래구조를 살펴보고 단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입주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줄다리를 하기 시작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택배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TV 완화'해도 저소득층엔 실효성 없다

7월 DSR 40% 규제 시행 걸림돌
소득 낮은 실수요자 대출 또 제한

정부가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방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 주 발표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이 낮은 청년·무주택자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 이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

정이다.

◆무주택자 LTV 10%p ↑

주로 거론되는 방안은 LTV를 확대하는 것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현재 LTV는 무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p) 확대 적용된다. 요건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LTV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에서 60%로 올라 대출 한도가 늘

어난다.

정부는 우선 LTV를 10%포인트 이상 올린 이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는 만큼 대출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LTV를 10%포인트 올리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 어린이날' 많은 인파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反쿠팡' 이커머스, 판매자 친화정책 묘수

판매 수수료 파격 혜택부터
광고비 지원·빠른 정산까지
'고객중심' 쿠팡과 다른 행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과 빠른 정산 등 판매자 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능한 판매자들을 영입해 상품 가짓수를 늘려 몸집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아이템 워너' 제도로 판매자들의 원성을 자아낸 쿠팡과는 다른 행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온은 오픈마켓 판매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진입한 판매자들의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광고비 30만원도 지원한다. 판매자가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 롯데온이 쿠폰 할인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위메프는 포털 방식의 업계 최저 수수료인 2.9% 정책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평균 수수료는 13.6%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는 5%다.

위메프는 최저 수수료를 도입한 것은 물론, 상품 카테고리마다 차등 적용하던 수수료 정책도 폐지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가

테고리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남성 캐주얼 판매 수수료는 15.4%, 디지털 기기는 12.8% 등이다. 위메프의 2.9% 정률 수수료 적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으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지난달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들고나온 티몬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지난달부터 판매자가 티몬에 상품을 등록할 때 옵션을 포함하지 않고, 단일 상품으로 등록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1%로 자동 적용되게 했다. 마이너스 수수료를 내걸어 판매수수료를 환급해준 것은 티몬이 최하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어린이날 맞은 5일 코로나19 확진자 676명... 서울 234명 /사진 뉴스1
- ▲ 백신 1차접종 누적 353만명, 전 국민 6.9%... 6일부터 70~74세 접종

- ▲ 검사 13명뿐인데 1040건 접수... 공수처, 사건 이첩 검토
- ▲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확진... 48시간 이동 중지



- ▲ 정의용, 브루나이 외교장관 회담... 미얀마 아세안 합의 공감
- ▲ 청문회 마친 노형욱, 공공주도 공급 대책 속도 '예고' /사진 뉴스1

2시간 전 접종확정... 두통과 피곤, 오한 등 후유증 ‘개인차’

‘노쇼 백신’ 맞아보니

‘급 예약’ 컨디션관리 못해 아쉬워 대기 10여명 중 절반은 ‘노쇼 백신’

접종 3일째 접종부위 근육통 느껴 1차 접종엔 2차 접종날짜 자동예약 접종 증명서, 일명 ‘백신여권’ 발급

“오후 1시 50분까지 오실 수 있나요? 2시 타임 접종 하려면 그때까지는 도착해 계셔야 해요”

장기 해외 체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근처 수심 곳의 병원에 대기예약을 걸어놨지만 몇 일이 지나도록 연락은 받지 못했다.

기회는 정작 엉뚱한 곳에서 생겼다. 친구의 아이가 휴일에 아프면 종종 이용하는 소아과에 ‘노쇼(No Show) 백신’이 생긴 것 같다는 연락이었다. 노쇼 백신은 접종 예정자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여분의 백신이다.

◆휴일, 2시간 전 확정, 1시간 거리 병원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자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일명 ‘백신여권’.

휴일인 지난 2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남은 시간은 2시간 반 남짓이었고, 병원까지는 집에서 한 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였다. 일단 무조건 그 시간까지 도착하겠다고 예약을 확정짓고는 바빠 움직였다.

노쇼 백신의 단점은 미리 컨디션 관리를 한다거나 어떤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의전화로 북새통인 병원

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인 만큼 생년월일로 30살 이상인지만 확인했고, 준비물도 신분증만 알려줬을 뿐 다른 고지 사항은 전혀 없었다.

기대 곳은 AZ 백신 접종에 대한 기사나 후기 검색 밖에 없었다. 예약 접종자들 후기에 나오는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기존 복용약이 없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전날부터 금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다행히 전날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에 안도했다.

병원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먼저 작성한다. 복용 중인 약은 있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간단한 확인이 끝나면 접종이 이뤄진다.

휴일이라 그랬는지 같은 시간대 접종을 대기 중인 사람들 10명 가운데 노쇼 백신이 절반 가량이었다. 접종 대상이었던 한 할머니는 아플 수 있던 얘기에 직전까지도 고민했고, 결국 접종을 포기했다.

◆두통과 피곤...증상은 개인차 극명

접종 직후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20~30분은 머물러야 한다. 살짝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이상 증상까진 아니었다.

AZ 백신의 경우 워낙 아프다는 후기들이 많아 병원 옆 약국에서 진통해열제를 사고, 회사에 연락해 다음날 연차 휴가를 쓰겠다고 해냈다.

가장 두드러졌던 증상은 피곤함. 다음날에도 그냥 푹 쉬면 괜찮았지만 활동을 시작하면 두통이나 피곤이 느껴졌다. 다행히 진통제 한 알로 해결될 수준이었다.

3일째엔 컨디션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주사 부위 근처의 근육통으로 팔을 들고 내리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다.

하루 늦게 백신을 접종한 기자의 배우자는 첫 날 밤 오한으로 힘들어했다. 백신에 따른 반응은 개인차가 극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경우 접종 이후 3일이 지나 때까지 다행히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이 지나갔지만 백신을 맞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되길 바란다.

1차를 노쇼백신을 맞으면서 가장 큰 궁금증은 2차도 맞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백신 1차 접종을 끝내면 자동으로 2차 접종 날짜가 예약돼 통보된다.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앱을 깔

면 1차 예방접종을 했다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일명 ‘백신여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계산 분들 중 백신 맞으실 분?”

정부가 노쇼백신을 접종 희망자에게 배정해주는 앱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적으로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자가격리 면제 등의 당근책이 주어지면서 노쇼는 즐기고 있는 반면 대기자는 넘쳐나면서다.

위탁의료기관 별로 대기예약방법이 다를 뿐더러 병원 자체적으로도 오늘의 방침이 내일엔 바뀌기도 한다.

기자가 접종한 병원도 배우자를 위해 물어보니 당시엔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해당일 오전 9시부터 대기를 접수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는 대기예약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아예 노쇼 대기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만약 노쇼로 백신이 남는다면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들 가운데 희망자에게 접종기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일반적으로 1~2명 분이 남긴 하지만 확답은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커지는 고용불안...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코로나궤 국적사 적자 1.2조 정부 휴업수당지원 내달 끝나

경영난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여 고용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수익을 내는 국제선에 비행기를 띄울 수 없어졌기 때

문이다. 또한 국제선을 띄울 수 있다고 해도 여객 수요가 대폭 줄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 항공사들은 지난해 연간 기준 대부분 적자를 냈다. 대한항공만 1089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나머지 국적사들의 적자는 도합 1조2566억원에 달한다. 또,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을 이용한 여객은 3940만 명으로 전년 1조2337만명 대비 약 68% 줄었다. 국제선의 경우 전년보다 84.2%

줄어든 1424만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항공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및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항공사들에 대한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올해 6월이면 끝난다는 데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직과 무급 휴직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항공사들은 현재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최대 180일의 지급 기간이 다시 기산되면서 오는 6월까지 받게 됐다.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끝나면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 분석이다.

대한항공노조 등 항공 산업 관련 8개 노동단체도 지난 3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현재 180일이다. 6월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180일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원 프로그램’ 재시행, 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기간의 올해 말까



한산한 김포국제공항 내 국제선 청사.

지 연장 등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급 휴직이 끝나도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한사업장 기준 최대 270일 동안만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LCC(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11월경 유급 휴직이 끝나면서 두 달간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받을 수 있는 무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7개월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장기적으로 원가연동 요금제 나와야”

▶▶ 1면 ‘택배물량 120% 폭증’서 계속

저상 택배차량의 경우 높이가 낮아 2.3m인 지하주차장을 오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택배차량의 경우엔 높이가 2.5~2.7m여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없다.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달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개별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자신의 돈을 들여 저상차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 이 과정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인천대학교 동북이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는 “택배 등 배송서비스의 원가는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은

단일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 서비스 체계에서 지금까지 이런 불합리한 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고객이나 배송기사 모두 적정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원가에 연동한 서비스 요금제가 나오고, 합리적으로 배송 기사에게 수수료를 책정해줘야겠지만 이런 재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배송기사가 서로 양보와 타협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생산·판매 줄고 노조관계 악화... 완성차업계, 위기감 고조

르노삼성 노조 무기한 총파업 결정
부분직장폐쇄... 일반 노조원 근무
한국지엠 노조 소득분배 개선 요구
반도체 공급부족 등 경영 압박 커져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의 판매량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4일 무기한 총파업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기간을 정해놓고 파업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무기한 파업 선택은 르노삼성의 노사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XM3 유럽 물량 등을 다른 르노 공장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의 부분 직장 폐쇄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임단협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꺼내든 파업 카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르노삼성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7만1687원 인상과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순환 휴직자 290여 명 복직을 제시했으나 노사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서비스 직원 사무소에 대한 운영 중단을 철회하라고 했고, 사측은 운영상 효율을 이유로 사업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다만 르노삼성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반 노조원들은 공장 가동에 동참하는 등 피해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4일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도 부산공장 직원 중 약 80%(약 1500명)가 출근해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르노삼성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3월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닛산 로그 위탁생산 종료 후 본사로부터 후속물량을 받지 못하며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르노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290명에 대한 순환 휴직도 추진했다. 적자가 누적된 AS 직영사업소 중 일부를 운영 중단하며 노조와의 갈등도 깊어진 상태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9344대의 완성차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6% 감소한 수치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4% 감소한 5466대, 수출은 87.2% 증가한 3878대를 각각 나타냈다.

한국지엠도 비슷한 상황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량 조절에 나선 한국지엠은 올해 임단협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조가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생계비 보전과 격려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측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도 경영 상황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반도체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부평 2공장을 50%만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19~23일에는 부평 1,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상가동해온 창원공장도 이달 들어 50% 감산에 돌입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한국지엠의 지난달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2만1455대에 그쳤다.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5470대, 수출은 27.5% 감소한 1만5985대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이 반도체 대란과 노사갈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맞을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임단협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노사 갈등 요인을 풀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LTV 완화해도...'서 계속

고소득자만 웃는 DSR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와함께 연소득과 주택가격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의 부부합산 연 소득은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주택가격요건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LTV 규제 완화...효과 '글썽'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LTV 완화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한도를 계산해 보면 연 소득 3000만원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LTV 50%를 적용 받아 3억원까지 대출(금리 2.5%, 30년 분할상환, 다른 대출 없는 경우로 가정)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추진대로 이 비율을 60%까지 올리면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가 시행되면 총 대출 가능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LTV가 확대되더라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연 소득 8000만원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현재 3억원(LTV 50%)에서 3억6000원(LTV 60%)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이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6억70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돼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난다.

연소득 1억원 무주택자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현재 2억4000원(LTV 40%)만 원에서 3억6000만원(LTV 60%)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DSR 40%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8억4000만원이어서, 주택담보대출외에도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더리움, 일주일새 30% ↑... 5000달러 신고가 넘는다

베를린 하드포크 성공적 마무리
단점으로 지적받던 가스비 절감
해외선 이달안에 5000달러 전망도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400만 원을 돌파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주춤한 틈을 타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이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이더리움은 420만 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새 30% 넘게 상승했다.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글로벌 거래 가격도 3370달러(약 379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종가 기준 ▲1일 341만 원 ▲2일 351만 원 ▲3일 381만 원 등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지난 4일에는 400만 원 고지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강세의 배경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이더리움 활용'과 '네트워크 업데이트의 성공' 등을 꼽는다.

최근 유럽투자은행(EIU)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기 2년의 1억 유로(1343억원) 상당의 디지털 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또 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자체 가상화폐인 JPM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 400여개 글로벌 금융기관을 연합한 글로벌 금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이 강조된 가상화폐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가스비(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뿐 아니라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달 진행된 네트워크 업데이트의 일종인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4월에 진행된 베를린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가스비가 크게 절감됐다"며 "오는 7월 예정된 런던 하드포크마저 성공한다면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대체 불가능 토큰)와 디파이(DeFi) 등이 주목받으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이달 안에 개당 거래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 컨설팅업체 드비어그룹 창업자인 나이젤 그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은 폭증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며 "일주일 내 5000달러에 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빠른 정산... 수수료 인하... 상생으로 '윈윈'

>> 1면 '反쿠팡' 이커머스... 서 계속

다양한 판매자가 입점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우수 판매자를 유지하면 구매자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마련이다. 소비자 만족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점 판매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수수료 정책 외에 판매자 친화 경영으로 빠른 정산을 펼치는 곳도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빠른 정산'을 도입했다.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완료된 다음날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의 90%를 먼저 정산하는 것. 기존에는

구매확정 다음날 100%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나 고객이 직접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배송완료 8일차에 정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산 시기를 일주일 앞당겼다.

이베이코리아도 대금정산 속도를 단축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에서 빠른 배송 서비스 '스마일배송' 이용 시 상품 출고일 다음 날 정산해주고 있다.

빠른 정산은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회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환영받는 정책이다. 위메프는 월정산과 주정산 제도를 운영중이다. 주정산 제도

는 특가 딜이나 신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한다.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함이다.

반면 쿠팡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까지 최대 6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온라인몰의 정산을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로켓정산법'이 발의되었을 정도다.

여기에 최근 '아이템 워너' 제도도 판매자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아이템 워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을 가운데 가장 싸고 평가가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 판매자의 상품 상세정보나 리뷰 등을 가져다 쓸 수 있어 지적을 받았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쿠팡의

'아이템 워너' 제도가 판매자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자 유치도 중요하다. 늦은 정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 워너' 제도는 향후 쿠팡을 이탈하는 판매자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꾸준히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 판매자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판매자들과의 상생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판매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도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노원구, 재건축 기대감 ↑... 4.5억 오른 '배짱매물' 속속

지역 내 중저가 재건축 단지 밀집 토지거래허가구역 벗어나 풍선효과 상계주공 32㎡, 올해 4000만원 ↑ 재건축 진행되며 고가매물 증가세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초읽기에 들어간 상계주공3단지 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긴 이른 바 '배짱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이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달 30일 기준 지역별 가격 상승폭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0.28%로 가장 크게 올랐다. 그 뒤는 ▲구

로(0.20%) ▲금천(0.18%) ▲도봉(0.15%) ▲강남(0.14%) ▲성북(0.14%) ▲강북(0.12%) ▲양천(0.12%) ▲영등포(0.12%) 등이었다.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32㎡는 지난 3월 5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올해 초 4억8000만원, 3월 5억원에 팔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 전용면적 68㎡가 9억원의 배짱매물이 나왔다.

이밖에 3단지 전용면적 84㎡가 10억을 넘긴 11억원, 59㎡는 8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전용 84㎡의 경우 지난 2월 6억5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가 4억5000만원 올랐다.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가 8억7000만원, 장미아파트는 전용 59㎡가 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류를 타는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고가의 매물을 내놓는 주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하며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상계주공1단지가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마쳤다. 상계동 보람아파트도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자금 모금을 시작했으며 상계주공3단지는 지난달 말 정밀안전진단 자금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완료했다. 한양아파트와 장미아파트 역시 지난달 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한편 지난 달 서울시 시장 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집계하는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서울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7.5다. 지난해 12월(114.6)보다 2.9포인트(p) 올라, 지난해 말 대비 상승률 2.5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년 이하 아파트의 상승률은 절반 수준인 1.53%에 그쳤다. 이 밖에 연령별 상승률은 ▲5년 초과~10년 이하 1.4% ▲10년 초과~15년 이하 1.96% ▲15년 초과~20년 이하 1.94%로 집계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며 '배짱매물'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안군 공고 제2021-528호

무안 군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무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무 안 군 수

1. 무안 군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조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	10	국지 도로	200	중로 1-903	청계리 546-3	진입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0	· 신설 - L=200m, B=10m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번지 일원	-	증)46,567	46,567	-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면적: 46,567㎡	· 기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2. 무안 군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도면 : 재제생략

3. 시행자 : (주)동양환경

- 4. 공람 장소 및 기간
 - 기 간 : 2021. 5. 6. ~ 2021. 5. 20. (14일간)
 - 장 소 :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열람 기간 내
 -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14필지)				49,684	46,567	-	-	
1	청계면	청계리 515-1	잡	1,078	909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2	"	" 515-2	임	463	463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3	"	" 516	잡	6,717	6,717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4	"	" 517-1	잡	573	573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5	"	" 518	잡	942	942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6	"	" 519	창	2,143	2,004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7	"	" 546-4	잡	9,265	9,265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8	"	" 546-7	잡	4,479	4,479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9	"	" 546-8	장	375	375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0	"	" 805-1	잡	560	556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1	"	" 산9-5	임	397	344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2	"	" 산13-1	임	15,567	12,815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3	"	" 산38-1	임	659	659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14	"	" 산38-11	임	6,466	6,466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나.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대 장	편입			
합 계 (5필지)				16,252	1,930	-	-	
1	청계면	청계리 332-1	도	275	213	일성(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6	
2	"	" 546-3	도	1,126	540	(주)동양환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	
3	"	" 산38-3	수	530	112	무안군	-	
4	"	" 산38-8	임	13,098	471	일성(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6	
5	"	" 산38-10	임	1,223	594	일성(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6	

코트라, 의료·IT기업 러시아 진출 지원

한-러 글로벌 파트너링 화상상담

KOTRA(코트라)가 국내 제약·IT업체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코트라가 '한-러 글로벌 파트너링 화상상담 주간' 행사를 열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와 정보통신(IT) 분야의 러시아 대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강소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에 나선다.

5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1위 유선 통신사 로스텔레콤을 비롯해 의료 분야 대표기업 5개사 등 러시아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참가한다.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 분야 러시아 기업들은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10개사와 ▲완제품과 원료 수입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을 협의한다.

러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제약사 4위로 꼽히는 아크리힌은 코로나19사태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한 한국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관심동맥 분야 국립병원의 독점 의료기기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스텐텍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국내기업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러시아 최대 유선 통신사 로스텔레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통신망 '아틀라스' 구축과 관련, 국내 통신장비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로스텔레콤은 러시아 영토 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러시아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렌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혁신센터를 통해 로봇, 증강현실(AR) 등 분야의 국내기업과 기술협력을 논의한다.

의료와 정보통신은 러시아 시장 진출 유망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제약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76억달러로, 전체 수입 품목 중 점유율 4위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세계 43개국으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암센터 신규 건축 등 의료 인프라 개선에 146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의료기기와 설비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생명수·신한생면’ 보험사, MZ세대 겨냥 ‘이색 협업’

삼성생명 ‘삼성생명수’
판매수익금 일부 환아 치료비 지원
신한생명 ‘신한생면’
BGF리테일·CU와 협업제품 선보
DB손보 ‘내차보험 만기라면’
CU에 제품 진열... 홍보효과 기대



삼성생명의 ‘삼성생명수’.



신한생명의 ‘신한생면’ 제품.

보험사가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에 속속 나서고 있다. 생수와 라면을 출시하고, 독특한 이름으로 재미를 더해 일명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을 통한 생수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했다. 제품 이름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라는 의미와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을 더해 ‘생명수’라고 정했다. ‘삼성생명수’는 전국 141개 이마트와 온라인 이마트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품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환아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속해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다양하고, 색다른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남도 서울대 교수팀과 협약을 통해 트렌드 리포트를 영입에도 활용하고, 임직원들도 트렌드 학습자료로 사

용하고 있다.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번 삼성생명수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협업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좋은 의미를 담은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생명도 앞서 ‘신한생면’을 출시해 업계의 눈길을 모았다. 신한생명은 지난 2월 BGF리테일의 CU와 협업을 통해 생면우동인 ‘신한생

면’ 기획 제품을 선보였다. ‘신한생면’을 포함한 발렌타인데이 컨셉으로 구성된 ‘신한생면 레디백 패키지’도 3000개 한정판으로 함께 출시했다. ‘신한생면 레디백 패키지’는 예약판매 개시 당일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생면” 출시 회사 내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에 반응이 좋았던 협업 중 하나”라며 “업계를 떠나서도 재밌는 기획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이색 협업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DB손보는 BGF리테일의 CU, 네이버파이낸셜과 컵라면과 자동차보험을 연계한 이색 상품 ‘내차보험 만기라면’을 출시하기도 했다. ‘내차보험 만기라면’은 ‘더베터질라면왕컵’의 패키지를 변경한 한정 상품이다. DB손보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보험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협업의 일환이다. DB손보는 해당 상품 1만3000여개가 CU에 진열되는 것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보험사와의 협업은 유통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협업에 장르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라며 “기존 유통업계는 식품 쪽으로만 협업을 이어왔지만, 보험을 포함한 금융권과의 협업에 대해 반응이 좋아 지속적인 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금융권, 인허가심사 ‘무기한 지연’ 개선

금융위, 소송·조사·검사 등 진행 중 사안중대성 따라 6개월마다 재개 기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당국의 인허가심사 중 형사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해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따라 심사중단을 면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감안한 조치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소송, 조사, 검사에 따른 중단 기준이 모호해 신규사업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판단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중단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세분화·구체화 된다.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인허가 심사를 중단된다. 크게 ▲조사 ▲제재 ▲검찰 고발 ▲기소 ▲재판 등 절차와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 가능성 등 원칙별 요건으로 나눠 살펴본다. 고소·고발이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제수사(압수수색·구속), 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절차는 인허가 신청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공정위나 금감원,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인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된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마

지는 모두 중단한다. 신청서 접수 전 조사 절차가 시작됐거나 신청서를 낸 이후라도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졌을 때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 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희망사다리’ 특별채용 20명 확정

7개 관계사 참여... ESG 경영 실천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그룹 내 7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특별채용 전형 프로젝트 ‘금융에서 희망을 쏘다! 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0명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그룹 차원의 ESG 채용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창업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희망퇴직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 등에게 ‘희망사다리’가 되고자 지난 2월부터 학력과 나이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들은 여행상품·패션·디자인·미

디어 콘텐츠 기획·IT솔루션 개발 등 비금융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26세부터 41세까지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구축한 전문성을 살려 미래금융사업, 중소기업금융,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섹션에서 전문위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특별채용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ESG 경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채용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송금하고 치킨 받으세요”

‘가족에 송금하고 치킨파티!’ 이벤트
NH농협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플랫폼 올인뱅크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용돈 송금하고 치킨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자주 송금하는 계좌들을 ‘자주쓰는 계좌’의 가족 그룹에 등록된 고객이나 ‘받는 통장표시’에 ‘용돈’이나 ‘치킨’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3만원 이상 송금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총 1000명을 추첨해 또래오래 치킨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계좌 등록 건수와 송금 건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안상미 기자 smahn10@



디지털금융부문 이상래 부행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족에게 용돈 송금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치킨 파티도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편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안전운전 캠페인

DB손해보험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DB손보는 지난 3일부터 약 한 달간 ‘가족사랑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현재 비운전자라도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될 시 법규 준수를 서약하는 것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DB손보 고객용 앱,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프로모션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 인증으로 안전운전 서명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서명 완료 시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정비 쿠폰(엔진오일 교환 50% 할인권, 와이퍼 교환 50% 할인권 등 4종)도 제공한다. /백지연 기자

주금공, 취약계층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 실시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금공은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금공은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

보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에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지만 앞으면 된다.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콜센터,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잘 나가는 '기아 K8 하이브리드'... 1리터로 18km 달린다

하이브리드 특화 클러스터 그래픽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로 **차 중량 ↓**
높은 수준의 안전성·편의성 확보

기아가 올해 야심작 K8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K8이 지난 3월 사전계약 첫째날 1만 8015대가 계약되며 흥행돌풍을 일으킨 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업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K8의 경쟁차량인 현대차 그랜저와 판매량도 주목받고 있다.

기아는 4월 K8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K8은 지난달 출시한 2.5가솔린, 3.5가솔린, 3.5LPI에 1.6터보 하이브리드를 추가해 총 4개 엔진 모델로 운영된다.

K8은 기존 K7 대비 전장(5015mm)을 20mm 늘려 5m를 넘겼고, 전폭(1875mm)도 5mm 늘렸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거(휠베이스, 2895mm)는 40mm 늘려 뒷좌석의 편안함을 강화했다. 그랜저와 비교하면 전장은 15mm, 축거는 10mm 길



기아 K8 하이브리드.

고, 전폭은 동일하다. 특히 디자인적으로 그랜저가 덩치에 비해 콤팩트한 외양을 갖춘 반면, K8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모습을 가졌다.

K8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PS(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 출력 44.2kW, 최대 토크 264Nm의 구동모터,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하이브리드의 정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특히 1.6터

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전 K7 2.4하이브리드 엔진의 최고 출력(159PS)과 최대 토크(21.0kgf·m) 대비 약 13%, 29% 향상된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갖췄다.

또 구동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12V 보조배터리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 적용으로 차의 중량을 줄이는 등의 개선을 통해 K7 하이브리드(16.2km/L) 대비 약 11% 높은 복합연비 18.0km/L를 달성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2.4



기아 K8 하이브리드.

가솔린(복합연비 16.2km/L) 자연흡기 엔진 기반으로, 배기량은 그랜저가 더 높지만 연비와 동력성능은 K8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아는 K8 하이브리드에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전면가공 휠 ▲후면부 하이브리드 엠블럼 ▲하이브리드 특화 클러스터 그래픽을 추가해 하이브리드의 개성을 더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K8 하이브리드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랜저를 앞선다. 트림별 가격은 노블레스 라이트 3698만원, 노블레스 3929만원, 시그니처 4287만원이다. 반면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3812만원~4632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K8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공영주차장(서울시 기준) 및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K8 하이브리드는 높은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로 준대형 하이브리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토탈, 대산공장 핵심사업 증설 완료

2017년부터 추진 '초대형 프로젝트' 연간 40만톤 규모 생산능력 갖춰

한화토탈이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요 제품 생산시설 증설을 완료하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폴리프로필렌 신규 공장 건설과 가스 전용 분해시설 증설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약 28개월간 진행된 이번 증설 프로젝트에는 총 5300억원이 투자됐다.

3800억원이 투자된 한화토탈의 신규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연간 4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신규 공장 증설로 한화토탈은 기존 연간 72만톤에서 국내 최대인 연간 112만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을 원료로 생산되는 합성수지로 전기전자소재, 자동차 내외장재, 각종 필름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식품용기, 포장재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



한화토탈 폴리프로필렌 공장.

용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소재다.

폴리프로필렌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소비와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소재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토탈은 이번 폴리프로필렌 증설을 토대로 이러한 국내외 시장의 수요 증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한계 추진했던 가스 전용 분해시설 증설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한화토탈은 가스 전용 분해시설에 1500억원을 투자해 에틸렌 15만톤의 생산능력을 확충했다. 이번 증설로 한화토탈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138만톤에서 153만톤으로 증가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쌍용C&E, 업계 첫 녹색채권 최고 인증등급

GB1·G1 등급 획득

쌍용C&E가 시멘트업계 최초로 녹색채권 최고 인증등급을 획득했다.

쌍용C&E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최고 인증등급인 'GB1'과 'G1'을 각각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시멘트업계에서 녹색채권 최고 등급을 받고, 채권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쌍용C&E가 처음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ESG채권의 한 종류로, 인증 등급은 ▲조달 자금 사용처의 적합성 ▲프로젝트의 평가·선정 절차 ▲조달자금의 관리·사후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진다.

쌍용C&E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채권은 사용자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평가 프로세스 등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쌍용C&E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자금은 순환자원처리시설과 폐열발전설비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쌍용C&E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3월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하고 새로운 경영비전인 'Green 2030'을 발표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해 종합환경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폐합성수지를 시멘트 연료로 활용하는 순환자원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유엔탄 사용량 '0'(탈석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사이니지로 예술작품의 감동 전달

디지털 사이니지로 미디어아트 구현

LG 사이니지가 예술 작품까지 담아낸다.

LG전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김정기 작가 작품 전시회 '디아터 사이드'에 디지털 사이니지로 미디어아트를 구현했다고 5일 밝혔다.

전시장은 입구 벽면에 55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어 붙인 6m 길이 비디오 월로 꾸며져 작가의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시에 사용된 LG 디지털 사이니지(모델명: 55SVH7F)는 화면 두께가 0.44밀리미터(mm)로 얇아 제품 연결 부분의 화면 이질감이 적다. 또한, 독자 화질 알고리즘으로 화면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보여줘 여러 장을 이어 붙여 대화면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시야각도 넓어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색이 왜곡되지 않아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전시장 내에도 실제 작품과 나란히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작품 바로 옆 LG 디

지탈 사이니지 화면을 통해 '드로잉 마스터'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다양한 장소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사이니지 솔루션으로 예술 및 전시 분야와 지속 협력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잠실 롯데백화점 6층 아트홀에서 열린 '김환기 화백 작품 미디어 전시회'에 실내용 LED 사이니지(시리즈명: LAPE)를 설치했으며, 롯데월드타워 야외 공간에는 실외용 LED 사이니지(시리즈명: GSCD)를 이어 붙여 가로와 세로, 높이 6m 크기 미디어 큐브도 구현했다.

/김재용 기자 juk@

벤처協, 벤처기업 ESG 경영역량 강화 지원

나이스평가정보와 업무협약 체결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나이스평가정보와 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ESG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협약에는 ▲우수벤처 선정사업 'ESG 경영 부문' 평가 및 선정 지원 ▲벤처기업의 ESG 경영 인식확산 ▲벤처기업에 특화된 ESG 민간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공동개발 협력 등의 내용

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ESG 경영 역량강화와 인식확산을 위해 올해 우수벤처 선정사업에 'ESG 경영 부문'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ESG 우수벤처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최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ESG 경영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혁신벤처기업도 경영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코로나로 경직된 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혁신기업군으로 부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모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ESG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QR코드를 찍어
래퍼 래윈의
ESG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보세요

캐릭터 사진앱·페어... 이통사, '키즈 콘텐츠'로童心 공략

SKT, 고학년 전용 주니어 폰 출시
KT, 캐릭터 사진 촬영 전용앱 탑재
LGU+, 자녀 이동경로 확인 기능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를 위한 키즈폰이나 콘텐츠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키즈폰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접목하기도 하고, 인공지능(AI) 등 특화 기술을 더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신비아파트' 시리즈 캐릭터를 접목한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인 'KT 신비키즈폰' 구매 이용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를 14일까지 진행하며 어린이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KT 신비 키즈폰에는 키즈 전용 콘텐츠인 '올레 tv 키즈랜드', 신비아파트 공식 앱, 신비아파트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용 사진 앱 '롤키(lolki)', 'KT 안심박스' 앱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특히 KT안심박스의 열공모드는 통화, 문자, 카메라, 갤러리 기본 앱 4종 외 부모가 선택하는 모든 앱의 이용을



모델들이 '올레 tv 키즈랜드 캐릭터 페어'를 소개하고 있다. /KT

제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올 초 초등학교 전용 스마트폰 'U+카카오톡프렌즈4'를 단독으로 선보였다. 안심지역 설정, 자녀위치 확인 등 기존 위치조회 서비스가 강화돼 자녀 이동 감지 시 보호자 알림과 자녀 이동경로 확인 기능을 더했다.

SK텔레콤도 초등학교 고학년 전용 LTE 주니어폰 '갤럭시 A21s ZEM'을 출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초등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해 2018년 기준 80%대에 진입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늘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이용시간이 가장 큰 폭의 비율인 73%로 증가해 초등저학년은 하루 평균 45분, 초등고학년은 1시간 45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스마트폰의 교육 역할도 강화돼 키즈폰 시장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즈폰 뿐 아니라 어린이 대상 콘텐츠 경쟁도 치열하다.



'콩순이와 친구들의 음악여행' 공연현장 모습. /LG유플러스

KT는 5월 한 달간 올레 tv 키즈랜드의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올레 tv 키즈랜드 캐릭터 페어'를 연다. 27일까지 뽀로로, 풀리, 캐리와친구들, 타요 등 10종의 캐릭터 콘텐츠 700여편을 무료 혹은 할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아울러 29일까지 기가지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기가지니 우리아이 칭찬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온택트 키즈콘서트 '콩순이와 친구들의 음악여행' VOD를 U+아이들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다. 배

우들의 움직임에 여러 대의 카메라로 밀착 촬영한 영상이 애니메이션과 합쳐진다. 아울러 어린이날을 맞아 U+tv와 모바일앱으로 U+아이들나라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콩순이, 옥토넛, 엄마까투리 등 인기 캐릭터의 울동동요 콘텐츠 600여편도 무료로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집콕'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이나 IPTV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U+, 고성능 안테나 모듈로 전송 속도 ↑

튜닝 필요 없이 단말에 쉽게 장착
데이터 전송속도, 최대 10% 높아

LG유플러스는에이스테크놀로지와의 다양한 산업군(B2B)의 단말기에서 폭 넓게 사용 가능한 '고성능 5G 안테나 모듈'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5G 통신으로 넘어가면서 높은 데이터전송속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졌으며, 이를 위해 단말은 더 넓은 주파수대역폭을 지원하고 안테나의 개수를 늘려야 하는 등 개발난이도가 높아졌다. 5G B2B 단말은 내장형안테나를 적용시 별도 튜닝해 장착해야 해 상당한 개발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따로 튜닝할 필요가 없고 쉽게 단말에 장착할 수 있는 '안테나 모듈'을 개발했다. 이 모듈의 핵심은 특히 출원한 광대역 안테나 소자인 '모노콘'이다.



LG유플러스 직원이 안테나 모듈을 들여보고 있다. /LG유플러스

안테나 모듈은 모노콘을 최적 배치해 개발됐으며, 기존에 출시된 안테나 대비 최대 10%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한다. 모노콘의 특성 덕분에 이 안테나 모듈을 탑재한 단말은 별도 안테

나 성능 최적화가 필요없다. 이로써 단말 제조사는 개발비를 절감하고, 개발 과정 및 전파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20년만에 풀 체인지 '뉴 만 TG', 3종 공개

안정성 검증 기술 중심 업그레이드

만트릭이 20년만에 풀체인지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대거 도입했다.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기술과 뒤쳐진 국내 미래차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만트릭버스코리아는 지난 4일 수원 테세에서 뉴 MAN TG 시리즈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풀체인지 모델은만의 기술력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운전자 700여명 피드백을 조화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며 미래 트럭으로 만들어졌다.

상용차는 주행 시간이 길뿐 아니라 내구성이 중요해서 현존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엄선해 도입한다. 때문에 상용차에 적용된 기술은 이미 검증됐다는 의미, 혹은 후후 승용차

에 도입되는 사례도 많다.

뉴 만 TG도 이미 도입된 기술 중 안정성을 검증받은 기술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대표적인 게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ADAS)이다. 뉴 만 TG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차선 복귀 지원(LRA)이 탑재됐다. 자율주행단계로 보면 1.5단계 수준으로 3단계가 상용화 단계인 승용차 시장에 비하면 다소 뒤떨어지지만, 여전히 ADAS의 안전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가장 최적화된 ADAS로 평가된다.

만트릭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에, 지속 개발 중이긴 하지만 도입은 아직 한참 이르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재용 기자 juk@

중기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3곳 선정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

제주도, 충청남도, 충남 태안군이 '2021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창업교육,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 구축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구축비 11억원과 5년간 운영비 7억5000만원(연간 1억5000만원) 등 총 18억5000만원을 지원

한다.

첫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엔 경북 안동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차 대상지로 뽑힌 제주도는 제주시 아라일동 2068㎡ 부지에 기술 습득이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표고버섯 스마트 팜을 구축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 농협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부지 인근에 건립 중인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복지관의 체육관, 보건실, 부모자조모임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4가지 색 선보

코웨이가아이콘 정수기 인기에 힘입어 주방 인테리어에 맞춰 컬러 선택이 가능한 글램 시리즈의 4가지 색상을 새롭게 선보였다.

5일 코웨이에 따르면 아이콘 정수기에 새롭게 적용한 색상은 감각적인 포인트 컬러의 ▲브론즈 핑크 ▲민트 그린 ▲미네랄 블루 ▲미드나잇 네이비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색상은 최근 인테리어 가전 트렌드와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사내벤처 육성... 최종팀에 2억

창업 실패해도 회사 복귀 보장

교원그룹이 사내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최종 선발팀에게는 최소 2억원의 사업지원금과 사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독립법인 분사 기회를 주되 분사한 뒤 창업에 실패해도 회사 복귀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교원그룹은 임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벤처 프로그램 '딥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를 통해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회사와 임

직원이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그룹의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2일까지 '딥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 1기 공모전'을 열고 첫 주자를 선발한다.

전 임직원이 대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사업을 비롯해 ▲1인 및 시니어 등 가구변화 ▲콘텐츠 및 플랫폼 비즈니스 ▲이커머스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김승호 기자

外人 공매도 타깃 된 바이오株... 한국판 게임스톱 재현 조짐

이들간 공매도 규모 1조9705억 주체별 비중서 외국인 86% 달해 셀트리온·씨젠 등 공매도 직격탄

게임, 삼천당계약 외인반격 매수 한국판 게임스톱 본격화 촉구도

공매도 시장이 재개장되자 셀트리온과 씨젠 등 바이오 종목에 공매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 주범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바이오주를 위주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어 개인투자자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 공매도 비중 86%...바이오주 타깃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4일 이틀간 거래된 공매도 규모는 총 1조970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외국인으로부터 거래가 이뤄졌다. 외국인은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3486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3572억원 규모를 공매도했다.

두 시장을 합한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는 1조7058억원에 달한다. 지난 이틀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5218억원 순매도 했으니 현물시장보다 공매도시장에서 적극 매도에 나섰다 볼 수 있다. 전 거래일 투자주체별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86.11%, 기관 12.32%, 개인

〈전 거래일(4일) 시장별 공매도 거래대금 순위〉 (단위: 원)

순위	코스피	코스닥
1	셀트리온 611억	씨젠 239억
2	카카오 279억	카카오게임즈 147억
3	LG디스플레이 265억	파라다이스 105억
4	금호석유 222억	케이엠더블유 86억
5	HMM 203억	에이치엘비 54억
6	기아 173억	비에이치 39억
7	SK텔레콤 151억	SFA반도체 33억
8	넷마블 140억	셀트리온헬스케어 31억
9	SK바이오팜 137억	컴투스 27억
10	한국조선해양 137억	다원시스 27억

/한국거래소

1.57%로 나타났다.

주요 표적은 바이오 종목이다. 이틀간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1321억원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씨젠이 528억원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종목 모두 이틀 연속 소폭 상승한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전 거래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던 22개 종목을 살펴보면 신풍제약, 삼천당제약, 텔론RF제약, 에스티팜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12개에 달한다. 모두 지난해 주가가 폭등했던 종목들이다.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다. 확인된 실적보다 연구·개발(R&D) 역량

이나 신약 파이프라인 등 향후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좌우한다. 증권가 신조어인 PDR(꿈 대비 주가 비율·Price to Dream Ratio)의 대표주자인 만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공매도는 헤지가 목적으로 풀이된다.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정반대로 볼 수 있는 공매도를 취해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뜻한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선물 등 차입 거래 수단이 많은 코스피와 달리 선물로 헷지가 어려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바이오주가 많다"

고 설명했다.

◆한국판 게임스톱? 뿔난 개미 공매도와 대립각

외국인이 발 빠르게 공매도 거래에 나서자 개인투자자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 다시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항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던 삼천당제약이 주인공이다. 하루 거래량이 10만~20만주에 불과했던 삼천당제약의 공매도 수량은 3일 하루 동안 9만6722주에 달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외국인의 타깃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공매도 영향으로 약세 마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가는 반등했다. 삼천당제약의 3일 종가는 전일보다 1600원(3.09%) 반등한 5만3400원에 장을 마쳤다. 개인투자자가 11만8000주 넘게 사들이며 외국인 공매도에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과 씨젠 등 공매도가 집중된 주요 종목 투자자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 주주 게시판에는 "주주연대가 응집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게임스톱 운동을 본격화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방향성엔 영향 無...바이오주는 '좀 더'

증권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바이오 종목은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더 클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글로벌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한 데다 국내 수출 실적 등 이익 개선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개별 종목과 업종, 나아가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증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공매도가 시장 방향성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4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차바이오텍, 주성엔지니어링 등 2건에 그쳤다. 전날에는 22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경험상 공매도는 수급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면서도 "이번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으로 한정됐고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가능 종목의 이익 모멘텀이 강해 계속 매도 압력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영향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나타날 것"이라며 "코스닥 바이오 종목은 공매도에 따른 영향력이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3건 '과태료'

금감원 2018년 회계연도 점검 위반 총 28건... 전년비 38%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회사가 19개사며, 대표자·감사 각 1인과 회계법인 7곳이다.

이번 점검은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회사유형별로는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한 곳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는 이행하고 있었지만 관리직 인력 부족과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줄어 이후 연도

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이 11개사에 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라며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반도문화재단, '가족사랑 그림사진' 수상작 전시회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의 '제2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공모전-수상작 전시회'가 5월 2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아이비라운지 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5월 가정의 달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 여가활동을 즐기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반도건설

DL이앤씨, 호주 플랜트 시장 진출 첫발

현지 리크릭 에너지와 HOA체결

DL이앤씨가 호주 플랜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호주 리크릭 에너지와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업무협력 합의각서(HOA)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다음달까지 세부조건 협상 및 본계약 체결

을 완료하고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수주금액은 약 3000만달러로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서 독점권을 보유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생산하는 합성가스를 원료로 중간생산물인 암모니아를 제조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 연간 100만

톤의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 사업이다. 현장은 남부 호주의 주도인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550km 떨어진 리크릭 광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앞으로 약 1년 동안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진행되는 이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KB證, 해외선물 캐쉬리워드·수수료할인

KB증권이 오는 6월 25일까지 약 8주간 해외선물 '캐쉬리워드·할인 수수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 진행한 '지수·통화 해외선물 거래 이벤트'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신규고객 할인 수수료 혜택 뿐만 아니라 우수고객에게는 캐쉬리워드 혜택까지 제공한다.

캐쉬리워드는 전체 거래 고객 중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계약수에 따라 캐쉬리워드를 제

공하며, 구간별 계약수는 KB증권 기본 수수료(5.9달러 당 1계약)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된다. 단, 제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다.

또 할인 수수료는 신규 개인고객 및 작년 11월 2일 이후 거래가 없었던 장기 미거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CM E거래소 주요 마이크로 상품과 일반·미니 해외선물상품에 대한 온라인(HTS·MTS) 수수료 할인 혜택을 이벤트 기간 내에 우선으로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한다.

/박미경기자

역대급 실적 낸 박찬구 ‘용퇴’... 금호석화 ‘전문경영’ 체제로

〈금호석화 회장〉



금호석화, 1분기 영업익 6천억 돌파
고영훈·고영도 사내이사 2인 선임
전문경영체제로 지속가능경영 발판

박철완 전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며 ‘조카의 난’을 마무리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표이사과 등기이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렸다. 금호석화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4일 이사회를 열고 박찬구 대표이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영훈 중앙연구소장



고영도 관리본부장

의 사임의사를 수용하고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키로 했다. 추가되는 사내이사 2명은 연구개발(R&D) 부문 전문가 고영훈 중앙연구소장(부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고영도 관리본부장(전무)이다. 이들은 백종훈 대표와 함께 영업·재무·R&D 중심의 3각 경영의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고영훈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장은 프랑스 CNRS, UPS에서 유기금속 화학 연구부문을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Loker

Hydrocarbon Institute에서 연구원을 지내고 1991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30년간 오로지 합성고무 연구에 매진해 온 국내 합성고무 연구의 권위자이다. 향후 제품의 기능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연구개발활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회사는 고 후보가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도 금호석유화학 관리본부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

년 금호그룹 재무관리팀으로 입사해 30여년이 넘는 현재까지 재무·회계·구매·자금 분야의 전문가로 부서를 이끌어왔다. 안정적인 재무 운영과 함께 금호석유화학의 부채비율은 과거 자율협약에 돌입하던 2009년 660%에서 2020년 말 기준 59.7%까지 낮아졌으며, 2021년 1분기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만큼 회사는 향후 고 후보가 보일 재무적 역량을 기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6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두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정기주주총회 때 선임된 백종훈 대표이사과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경영인 역할을 수행할 3인의 사내이사를 갖추고 7인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내부거래·ESG·보상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 또는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전경련, MSCI에 韓 증시 ‘선진시장’ 승격 촉구 건의

“韓 증시 신흥시장 지수 분류 부적절
펀더멘털·주식규모 고려 승격 충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국제화된 주식시장을 보유한 한국 증시가 여전히 신흥시장 지수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에 한국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이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한국경제의 위상 ▲외환거래 편의성 ▲평가의 공정성 ▲투자환경 개선 ▲정보접근성 제고 노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건의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주식시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선진시장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오는 6월 MSCI의 연례 시장분류 작업에 앞서 한국시장의

승격 필요성을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모건스탠리에 설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6조달러로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실물경제 뿐 아니라 주식시장 규모도 글로벌 최상위권이다. 영국 FTSE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기관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한국은 1인당 GNI 등 MSCI의 선진시장 편입요건 정량지표도 모두 충족한다.

전경련은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 기관인 다우존스(1999년), S&P(2008년), FTSE(2009년)도 이미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편입했음에도 유독 MSCI만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CI는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 불가 사유 중 하나로 역외 외환시장 부재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상 불편을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역외 외환시장은 없지만, 원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환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달러 거래액은 전 세계 10위, 기축통화 제외 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홍콩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MSCI가 주장하는 한국의 역외 외환시장 허용은 거시경제, 통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IMF에 구제금융 신청 경험이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MSCI는 영문 공시자료 부족 및 배당금 사후 결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정보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국가별 MSCI의 평가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받은 일본에 대해서는 MSCI가

정보전달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양국의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유독 한국에만 개선필요 등급을 부여한 것은 국제적 형평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MSCI는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그동안 MSCI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간소화, 투자목적 현금대출 제한 해제, 증시 거래시간 연장 등을 투자자 편의개선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MSCI는 한국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주식 시세정보 접근성이 낮아 금융기관이 새로운 지수 인덱스 상품 등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체육 시장 급성장 2040년 일반육류 추월 韓, 적극 진출 나서야”

무협 ‘대체 단백질 식품’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건강·환경·동물 복지 등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대체 단백질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활성화는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증시에 따른 장기적 트렌드로, 2035년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체육의 경우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를,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체 단백질 식품이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제조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대신 식물 추출, 동물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단백질 ‘재배·사육’ 시대에서 ‘추출·발효·배양’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대체 단백질 식품군 확대, ▲동물 세포 배양 방식 상용화, ▲기업간(B2B) 생태계 활성화, ▲중국 시장 공략 대두 등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 4가지를 제시했다.

대체 단백질 식품의 원조격은 대체육 햄버거다. 2009년 비온드미트가 식물성 대체육 햄버거 패티를 내놓은 이후 대체 단백질은 유제품, 해산물로도 확대되고 있다. 잇저스트는 2017년 녹두를 원료로 만든 달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3년 만에 1억개 이상 판매했고 오션허거푸드는 토마토로 만든 참치, 가지로 만든 장어, 당근으로 만든 연어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
시정명령·과징금 1400만원 부과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코건설이 2014년 2월~2019년 4월 기간 중 총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 철근크리

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15개 수급사업자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 1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박시 워치와인더 공식 수입원 (주) 비더블유아이
www.bwi.co.kr / Tel. 1661-9316



‘구름’ 탄 롯데칠성, ‘달달함’ 담은 하이트진로... 1분기 好好

새로운 사업전략으로 분위기 반전 롯데칠성, 주류부문 실적 대폭 개선 하이트진로, 中 수출량 84% 성장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었던 주류업계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춘 사업전략으로 2021년 1분기 개선된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대표 맥주제품 클라우드 리뉴얼을, 하이트진로는 해외시장에서 과일소주(과일리큐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며 승부수를 띄운 게 적중한 셈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분기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 영업이익 흑자전환 및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롯데칠성음료 주류 사업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은 16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176억원 손실에서 올해 9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중 맥주 매출이 2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1% 급증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맥주 신제품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와인 제품 등이 가장



롯데칠성음료는 대표 맥주 클라우드 모델로 그룹 BTS를 기용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호조로 이어져 매출액이 늘었다”며 “주류 매출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고 비용집행 효율성 제고로 영업이익 또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새롭게 수장에 오른 ‘마케팅 전문가’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의 전략이 유효했다. 롯데칠성은 성장하는 가정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맥주 신제품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출시되면서 부침을 겪어야 했다. 주요 시장인 주



하이트진로 과일소주 제품군이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진로 포스터, 일본 매장에 전시된 진로 제품.

점 등에서 제품 알리기에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 1분기를 달랐다. 기존 맥주캔(355ml) 제품보다 용량은 줄이고 길고 가는 슬리캔(330ml)을 도입해 늘어나는 ‘홈술족’을 공략했다. 그 결과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가 가정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다.

또한 박 대표는 수십억 원을 들여 톱모델을 기용하고 제품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맥주 ‘클라우

드’ 출시 7주년을 맞아 포장을 새롭게 바꾸고 ‘구름맥주’의 제품 속성을 알리며 흥행몰이에 돌입했다. 방탄소년단을 새 모델로 발탁하며 ‘빅모델 전략’을 선택했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시장에서 과일소주 ‘에이슬시리즈’로 젊은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며 코로나19 위기를 타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분기 중국시장 소주류(참이슬, 과일소주)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83.8% 성장했다. 지난

해도 전년 대비 56% 증가한 데 이어 1분기도 높은 성장세다. 중국 시장에서의 급성장 요인은 과일소주 인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과일소주 수출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117%씩 성장했다. 소주류 가운데 과일소주 비중이 2017년 14%에서 지난해에는 53%로 늘었다.

젊은층의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도 주효했다. 최근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바이주(白酒)’와 같은 중국 대표 술을 즐기는 기성세대와 달리 가볍고 맛이 좋아 구미가 당기는 술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대표 인기 제품인 ‘자몽에이슬’, ‘청포도에이슬’은 중국에서 ‘자몽편루(眞露)’, ‘청포도편루’로 불리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주요 가정 채널과 온라인 채널 영업을 지속해서 강화, 확대했다.

일본에서도 한류 영향으로 과일리큐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내 세븐일레븐, 미니ストップ의 전국 점포에 참이슬 시리즈를 입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내게 맞는 제품·고품질 응대... 테스트불가는 아쉬워”

크포 ‘아모레스토어 헤어&바디’ 가보니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품 한곳에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로 환경 보호

아모레퍼시픽이 샴푸, 바디워시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매장 ‘아모레스토어 헤어&바디’를 열었다. 이마트 자양점에 지난달 26일 개점한 아모레스토어 매장은 고객에게 제품 체험과 함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공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헤어 및 바디 브랜드를 한 데 모아놓았다. 해당 매장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환경 친화적인 리필스테이션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둘러봤다.

◆체험매장이라는 말 무색하게... ‘테스트 불가’

지난 2일 찾은 해당 아모레스토어 매장은 서울시 광진구 이마트 자양점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직사각형 형태에 초록빛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매

장에 들어서면 외곽을 따라 헤어나 바디용 샘플 제품들이 놓여있거나 친환경적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한 리필 스테이션, 향기 테스트용 소분 병들이 놓인 센트 아트리에, 제품 콘셉트 안내지, 태블릿PC 등이 나열해 있다.

매장 중심부에는 작은 직사각형 형태로 싱크대 인테리어에 슈, 드라이기 등이 설치돼 있다. 제품을 바른 뒤 씻어내거나 현장에서 거품을 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피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탈모 진단 기기도 마련해놨다.

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해피바스, 미장센, 라보에이치, 러(呂), 스킨유 등 브랜드의 여러 제품이 나와있었다. 리필스테이션에는 샴푸 및 바디워시 10가지 제품이 들어있고, 센트 아트리에는 전문 조향사와 협업해 만든 43가지의 향이 준비돼 있다.

단점은 이번 신개념 생활용품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객의 직접 체험’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인해 오픈하자



서울 광진구 이마트 자양점에 위치한 아모레스토어 헤어&바디 매장 전경. /아모레퍼시픽

마자 체험이 불가능한 상태다.

◆고품질 직원 안내·친환경 즉석 패킹 등 장점...내게 맞는 제품 검색도

아모레스토어 헤어&바디에서는 직원의 고품질 응대가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브랜드의 다품목이 모여있음에도 제품별로 직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매장의 특징과 특별한 서비스를 묻는 고객들의 질문에 준비된 직원의 안내가 이어졌다. 다만 직원이 한 명뿐이어서 추후에 많은 고객이 몰릴 시 원활한 안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샘플 테스트 불가, 적은 수의 직원 등

을 보완하는 것은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PC였다. 최근 유행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와 비슷한 설문지 응답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기 및 제형의 제품을 찾을 수 있다.

해피바스, 미장센 브랜드의 샴푸와 바디워시 10종의 내용물이 철제 원기둥의 장비에 보관돼 있고 리필스테이션 옆 하단부에는 재활용 플라스틱(PCR PET)으로 만든 리필 전용 투명 용기가 살균기에 가득 담겨있다. PCR PET 1개 당 500ml 생수병 약 2개, LED 전구 23시간 사용량을 절약 가능하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국토부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제’

오는 8월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와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과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자생적 도약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현대차·위첸만 등 국내외 수소산업 최신기술 한자리에

‘제2회 수소모빌리티+쇼’ 9월 개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트램, 수소지게차 등 수소 동력 기반 모빌리티와 수소인프라 및 에너지 등 수소산업 최신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올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제2회 수소모빌리티+쇼’에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그룹, 생코(프랑스), 위첸만(독일), 스웨덴대사관 등이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새롭게 개발한 수소전기차와 현대모비스의 연료전지,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올해 수소 전담 조직을 신설한 포스

코그룹도 수소 사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프랑스 생코는 수소차에 적용하는 고성능 실링 기술을, 독일 위첸만은 수소 연소 엔진과 고온 연료전지(SOFC), 수소 분배용 밸브에 사용하는 금속 벨로우즈와 호스, 파이프 및 파이프 어셈블리 제품군 등을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 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재용 사면 여론에... 차·MB 사면 연결될까 ‘침묵하는 丈’

여당 일각서 ‘JY 특별사면’ 주장에
靑 “사면 검토계획 없다” 선 그어

JY 사면조사 긍정 69%, 부정 23%
차·MB 사면 찬성 43%, 반대 4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자칫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뒤 낸 입장과 동일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는지’를 묻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대답이다.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재용 사면 검토해야’ 요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 극복 차

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

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에게 조사한 이 부회장 사면 여부 여론조사(4월 24~2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6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3.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여부에 달린 듯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달리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는 찬성(42.8%), 반대(47.4%)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현재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물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은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딸기전용 항공기’ 운항... 수출 21% 꺾중

농식품부, 싱가포르 行 88회 운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딸기 수출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항한 결과, 딸기 수출액이 1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주 4회씩 총 88회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투입했고, 이를 통해 전체 싱가포르 딸기 수출의 91%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출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 당시 체결된 운임 가격은 4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수출업체와 농가 물류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싱가포르 딸기 수출액은

1525만5000달러로 전년(1252만8000달러) 대비 2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싱가포르 고급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2~4월 집중 마케팅을 추진, 현지 생방송 판매 3분만에 고가의 한국산 딸기를 완판해 매출액 1만달러를 달성했고, 유명 셰프와 연계해 고급 디저트숍 딸기 신메뉴를 런칭하고 예약이 조기완료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12개소에서 한국산 딸기를 디저트용 식재료로 구매하는 등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만을 마련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딸기 수출단가는 1kg당 15.5달러로 전년(1kg당 11달러)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기업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 완화

환경부, 내달부터 0.5%→0.1%로

6월부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책임보험 자기부담률이 기존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바꾸고,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요율에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 시설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 등이 포함된다.

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제도

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되지 않은 건은 총 42건이다. 이 중 24건(57%)은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24건 중 22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받지 못했던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돼 기업의 보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자기부담금은 당초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김부겸, 청문회 쟁점 ‘라임펀드·공정선거’

국무총리 후보자 6~7일 인사청문회
野 “부적격 인사”... 공방 이어질 듯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시험대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만큼 김 후보자 인준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할 만큼 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 자산운용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피해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모르고, 이 과정에서 손해 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펀드에 가입한 지) 어떻게 아냐.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냐”고 반박한 바 있다.

과거 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후보자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관리할 수 있는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을 지냈고, 당대표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에 대해 언급한 뒤 “(김 후보자 지명은) 관련 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한 정파에 몸담았고, 정파에서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대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점,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한 사실 등이든 ‘도덕성 논란’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 앞선 서면 질의를 통해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내외가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사실도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 29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도입 등 대응 과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현 정부 부동산, 코로나19 대응 기조에 대해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게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 천연물 소재 개발

네추럴에프앤피와 기술이전 계약

한국식품연구원은 신회순 박사팀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천연물 소재들을 개발해, ㈜네추럴에프앤피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네추럴에프앤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GMP 1호 인증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과 R&D 시스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신회순 박사 연구팀은 흡연 및 미세

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발병 기전을 중심으로 5가지의 세포기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식물 및 천연물, 미생물 소재들을 평가했다. 1차 선별 후보소재에 대해서는 천식, 비염, COPD,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 악화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재검증해, 최종적으로 천연물 10종, 미생물 2종, 단일성분 1종의 소재를 선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대, 신속검사 전 구성원 확대 2학기 '대면수업' 정상화 추진

‘검사 원하는 구성원’ 대상 확대
코로나 검사 위한 예약 웹 개발 중
채취부터 결과 통보까지 2시간

서울대가 10여 일 전부터 학내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 검사 대상을 전 구성원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서울대 전 구성원은 누구나 자연대 강의실현연구동 주차장에 설치된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내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자진단검사를 6일부터 ‘검사를 원하는 서울대 전 구성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4일 오후 학내 서신을 통해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 노력의 하나로 시범 시행한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 사업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검사 대상을 오는 6일부터 검사를 원하는 서울대 전 구성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6일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구성원은 누구나 서울대 자연

대 강의실현연구동(25-1)동 주차장에 설치된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현재 해당 검사를 위한 예약 웹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정식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교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부터 자연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시범 실시했다.

이 검사는 검체 채취부터 분자 진단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처리해 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통보된다. 기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를 알기까지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서울대는 검체 확인 시설을 검체 채취소 바로 옆에 뒤 검체를 외부 시설로 옮기는 시간 등을 단축했다.

학내 검사소에는 체온 측정과 문진 표 작성 부스, 검체 채취소 3곳, RNA

모듈, PCR 모듈 컨테이너, 양성 판정이 나온 검사자들을 위한 격리 부스 등이 설치됐다.

서울대는 다음 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부총장은 이날 서신에서 “다음 학기부터 교육·연구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면 수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로 지혜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대면 활동을 조금씩 정상화하고, 특히 실험·실습과 토론 등 대면 활동이 핵심적인 수업의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권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오는 20일 코로나19를 직접 겪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SNU 토크 콘서트’를 열고 코로나19 경험담을 나눈다. 여 부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겠지만,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도 없다”며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적, 심리적 피로감에 대해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키울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추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서울과기대, AI 신기술 인재 10만명 키운다

대학 간 협력... 102억 지원받아
전남대 등 6곳과 컨소시엄 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인공지능(AI) 분야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반영한 신규 과제로, 공유·개방·협력을 토대로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서울과기대는 ▲전남대(주관대학)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서울과기대가 속한 컨소시엄은 올해 총 102억원을 지원받아



서울과기대가 3일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인공지능(AI) 분야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인공지능응용학과 수업 장면. /서울과기대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과기대는 이를 위해 창의융합대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를 신설한다. 창의융합대학은 정부의 미래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한 인공지능응용학과와 2022년 신설 예정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으로 이루어진 첨단학문 분야 중심의 단과대학이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8대 신산업 인재 10만명 양성

7개 대학 연합체에 총 816억 지원받아

건국대학교가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국대는 ‘한국판 뉴딜’로 8대 신산업 분야의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리더로 앞장서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실감미디어(주관대학 건국대) ▲인공지능(주관대학 전남대) ▲빅데이터(주관대학 서울대) ▲차세대반도체(주관대학 서울대) ▲미래 자동차(주관대학 국민대) ▲바이오헬스(주관대학 단국대) ▲지능형 로봇(주관대학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에너지 신산업(주관대학 고려대) 등 총 8개 신산업 분야에서 1개씩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고 대학끼리 공유 대학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1개

연합체는 7개 대학으로 구성됐고 각 연합체는 올해 102억원씩 총 816억원을 지원받는다.

건국대는 실감미디어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및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감미디어 분야의 기본 축인 실감미디어 기술, 실감미디어 콘텐츠 및 휴먼디자인 교육과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및 창업 교육을 기본 제공하는 특화된 과정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경희사이버대 교육콘텐츠 제작 모습.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학원, 2학기 신·편입생 모집

10일 부터 내달 14일까지 접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와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문화예술경영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등이다.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전형은 서류평가 40%(자기소개서 20%+연구계획서 20%)와 심층면접 60%로 진행된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은 개원 초기부터 체계적인 논문지도를 통해 역량있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8~2020년 기준 논문수

114편, 졸업생 수 대비 논문 배출 비율이 64%로 타 사이버대학원보다 높다.

대학원생이 우수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 계획, 서문 작성, 공개 발표 등 체계적 수업·지도 체계와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학기 전공별로 논문 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세미나’, ‘논문 작성법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연구 발표회, 공개 발표회, 논문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문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각 전공별 교수 중심으로 세심한 학생지도와 대학원 본부 및 행정 분야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은 언택트와 온택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세미나 및 문화학습 등 교육·연구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이 가능토록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수업 지원 제도 및 시스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개교 115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 개교 115주년 기념식이 4일 동국대 분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수여 ▲동국학술상·우수연구자상·대학원학술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이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학

생 50명 남짓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우리대학은 어느덧 35만 명의 동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된 주요 내빈 및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인공지능융합학부 등 신설

내년 수시·정시부터 모집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융합학부와 바이오융합공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한다. 신입생은 올해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부터 모집하며, 정원은 각각 100명과 30명이다.

5일 삼육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과 구조조정 개편안을 결의했다.

인공지능융합학부는 기존 지능정보 융합학부를 개편한 학과다.

인공지능 중심의 공학적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경영적 통찰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전공으로 기술경영전공(경영공학사)과 인공지능공학전공(공학사)을 운영한다.

바이오융합공학과(공학사)는 미래 신산업 트렌드인 바이오의약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 진단, 헬스케어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바이오융합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 기자

www.metroseoul.co.kr

메트로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의 강자 메트로 미디어 메트로신문이 확 달라집니다

메트로신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버스에서도 메트로뉴스 Yap TV

메트로TV로 세상을 본다



AI앵커가 진행하는 메트로TV(tv.naver.com/metrotv)를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탐방, 스타기자분석 등 깊이 있는 경제뉴스와 재테크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합니다.

디지털 퍼스트를 향한 기획 콘텐츠



탐사보도, 현장탐방, 메트로 팩트체크 등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깊이 있고 무게 있는 킬러 콘텐츠를 발굴, 주요지면 및 메트로 홈페이지에 배치합니다. 민원기자들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서울버스TVYap에 속보뉴스 제공



메트로는 서울 시내버스TV를 운영하는 한국버스방송(주)과 제휴, 버스 6000대에 속보뉴스를 제공합니다. 버스방송 YapTV를 통해 450만 명에게 매일 따끈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메트로배 장기대회



장기애호가 천만시대, 국내외 최정상급 프로장기기사들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메트로 주최 프로장기 십단전!

구독 및 광고 문의: 02)721-9851

부산문화에 한류 더해 랜선축제... 8일 K-팝 콘서트 개막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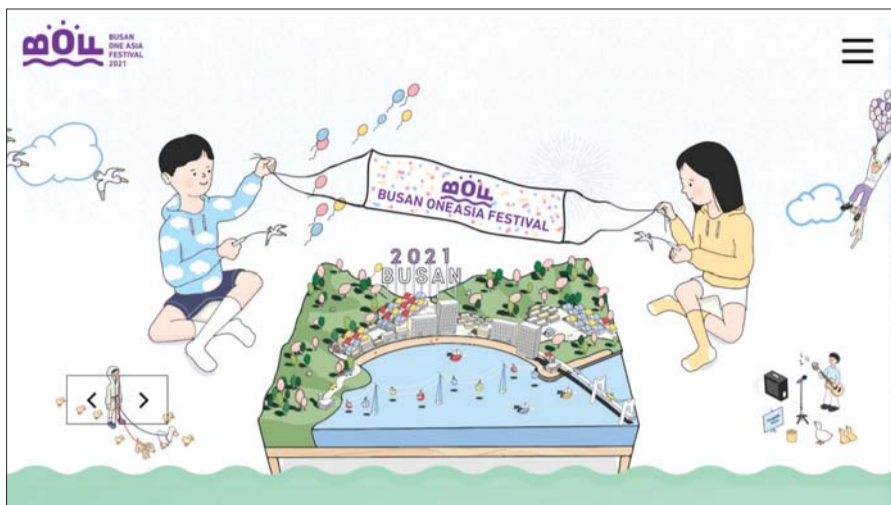
메이드인부산 등 5개 프로그램 마련 V라이브 통해 230개국 스트리밍 슈퍼주니어 등 한류스타 총출동 박형준 시장 “한류팬에 희망 전달”

부산시는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발 한류 문화 종합축제인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을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페스티벌을 위해 BOF 최초로 한류와 부산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랜선 종합축제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K-팝 콘서트 ▲파크 콘서트 ▲BOF 랜드 ▲B-아트 ▲메이드인부산 등 총 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홈루텐스족이 늘면서 랜선에서 다양한 문화를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홈페이지 화면 캡처

즐기고 있어 BOF의 주요 타겟층인 MZ세대에게 뜨거운 반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팝, 파크 콘서트는 V라이브를 통해 230개국에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유튜브·라인·올케이팝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전세계 한류팬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올해 BOF는 최고의 출연진과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사전 온라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BOF 랜드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박준형, 돈스파이크, 초아 등 셀럽과 협업을 통한 BOF만의 오리지널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실시간 스트

리밍으로 만날 수 있다.

또, 부산음악창작소 음반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나의 노랑말들 ▲오 느린윤혜린 ▲호재이 등을 비롯한 부산지역 레이블 공연팀의 무대도 랜선으로 즐길 수 있다.

올해 BOF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는 8일에 막을 올린다. 슈퍼주니어, 강다니엘, 마마무, NC T드림, 펜타곤, 러블리즈 등 한류 대세가 총출동한다.

특히 위아이가 부산 주요관광지인 마린시티, 광안리, 해운대 등을 직접 다니며 생생한 여행의 현장감과 설렘을 전한다. 깜짝 게스트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핫플레이스를 직접 소개하는 특별한 랜선 여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인 파크 콘서트는 9일에 김범수, 거미, B1A4, 폴킴, 제시 등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아트테이너 김중재·섭섭 작가와 부

산소재 대학생들이 기획한 공공아트(벽화) 프로젝트 사업인 B-아트는 금정구 금사동 예술지구P와 부곡동 늘푸른아파트 입구에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옷을 입힌다.

메이드인 부산에서는 부산지역 우수 문화 공연 작품인 ‘원으로 만드는 아시아’를 퍼포먼스 시네마로 새롭게 만나 볼 수 있다. 오륙도 선착장 등 부산 야간 명소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영상을 ‘설레는 하룻밤의 꿈’이라는 이야기에 담아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랜선으로 돌아온 BOF가 우리 국민과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지만 익숙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광주북구, 5월말까지 ‘미디어파사드’ 공연

지역 특화 콘텐츠 보급·확산 브이로그 등 영상 다양성 UP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외벽을 캔버스 삼아 화려하게 펼쳐지는 빛의 향연인 광주광역시 북구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미디어파사드는 메인작품 ‘빛의 나무(진시영 작)’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류의 치유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광주북구는 오는 9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이후에도 5월 말까지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지속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지원한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야발쇼’를 특별 상영했다.



광주북구, 미디어파사드 공연.

5월 셋째 주부터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정록 초대전 그곳, 그 숲’, ‘리암 길릭: 워크 라이프 이팩트’ 등의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5월 광주’를 기념하기 위해 북구청 직원이 제작한 브이로그 영상 등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예술성에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을 더

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향후 문화산업기관과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공연으로 지역의 특화 콘텐츠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답게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화순군, 귀농·귀촌박람회 우수홍보관상

온·오프 상담, 특산물 홍보

화순군이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청년에게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홍보관 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업이 공동 주최했다. 박람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돼 홍보 효과를 높였다.

군은 홍보관을 현장에 마련해 오프라인 상담과 특산물 홍보를 진행했고, 온라인에 전시관을 따로 구성해 지역 특성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귀농 정책 상담 활

동을 전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귀농 귀촌인 농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화순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는 초기 정착이 어려운 귀농인에게 용자를 통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선도 농가와 1:1 결연을 맺어 연수하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임시 거주 시설인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이 있다.

도농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성공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에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 5명(14.7%)은 화순군에 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화순(전남)=강성대 기자

나주시, 찾아가는 로컬푸드 체험투어 행사

복지시설 아동에 체험활동 기회제공

나주시는 99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투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복지시설 아동의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은 이날 이화영아원, 금성원, 백민원 등 복지시설 아동들과 만나 나주산 딸기 생크림케이크 만들기

를 비롯해 다양한 조리체험을 실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계산원, 성산원, 수산원,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입소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컬푸드 체험투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복지시설 아동들의 체험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이번 체험 투어를 계획하게 됐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로컬푸드와 더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상주시-경북대 지역사회 연계 상생협력

경북 상주시는 경북대학교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영석 시장과 홍원화 총장은 협약에 따라 다양한 연구개발(R&D)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관학 협력 사업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강 시장과 홍 총장은 최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상생협력과 특성화 방안 마련에 공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상주시와 경북대의 상생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마스크·농산물 등 기부품 배부 계획

함평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계각층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등 훈훈함을 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주)SJ&TA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1천 200만 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10만 장을 기탁했다.

같은 날 함평농협군지부(지부장 김천국)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50박스를 기부했다.

또 농업회사법인(주)금호(대표 박청)와(주)195F&B(대표 김법안)는 300만 원 상당의 꾸기와 우리밀 빵을 함평군에 기탁했다.

군은 기탁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이상의 함평군수(왼쪽 세 번째)와 (주)SJ&TA 유학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마스크 기탁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저소득 출산가정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가정의 달에 이웃들을 잊지 않고 온기 가득하고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관내 소외된 이웃 및 출산가정, 아동들에게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함평(전남)=강성대 기자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홍삼제품 농축액→파우치형→스틱형 변신

**KGC인삼공사 정관장 매출 분석
세대별 특징·선호 제품 각기 달라
웰빙선물 각광... 휴대성·편의성 ↑**

KGC인삼공사가 지난 30여년의 정관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홍삼 제품에도 시대별 트렌드가 반영돼 세대별 선호 제품이 각기 다르다고 5일 밝혔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정관장 홍삼정'이 단독 선두를 달렸다. 명절 선물로 홍삼이 떠오르기 시작한 2000년대는 선물하기 좋은 파우치형 제품이, MZ세대가 강력한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에는 편의성을 내세운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전-홍삼 100% 농축액 '정관장 홍삼정'이 베스트셀러

2000년대 이전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홍삼 제품은 '정관장 홍삼정'이다. 홍삼 100% 농축액 제형으로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KGC인삼공사의 대표제품이다.

정관장 홍삼정은 매해마다 100만병 이상 판매됐다. 이는 20초에 1병이 판매

된 것으로 '20초 홍삼'이란 다편임을 얻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

정관장 홍삼정은 사포닌뿐 아니라 아미노산, 아미노당, 홍삼다당체, 미네랄 등 다양한 홍삼 유효 성분을 최적화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홍삼 본연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오랫동안 꾸준히 찾는 충성 고객들이 많은 제품이기도 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만 특히 60세 이상의 두터운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다.

◆2000년대 -파우치형 제품 '정관장 홍삼톤' 강세

2000년대 들어서는 삶의 여유와 건강을 중시하면서 웰빙 선물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홍삼이 명절 선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선물하기 좋은 파우치형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정관장 홍삼톤'은 정관장을 대표하는 파우치형 제품이다. 홍삼 농축액을 주원료로 하여 다양한 생약재를 배합한 복합한방 액상 파우치 브랜드로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명절이나 가정의 달 등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액상 파우치 제형으로 섭취하기에 부드럽고, 적당한 부피감에 고급스러운 적금색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것을 이유로 KGC인삼공사 측은 보고 있다.

특히 2005년 출시한 '정관장 홍삼톤골드'는 홍삼과 식물성 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제품 중 처음으로 면역력에 대한 기능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다. 10년 넘게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홍삼정에 이은 정관장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연령대별 매출을 분석해 보면 정관장 홍삼톤 매출의 50% 이상이 4050세대이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 홍삼톤은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파우치형 제품으로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대 이후-점점 더 쉽고 편리한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등장

2010년대 들어서는 다양성과 삶의 개성이 더욱 중시되면서 홍삼 제품도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졌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을 좀 더 쉽고



정관장에서 알아본 시대별 홍삼트렌드

편하게 섭취하고 싶어 하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2012년 10월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을 출시했다.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인 건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최초다.

출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출시 50일만에 1만5000세트가 판매됐고, 매해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며 출시 5년만인 2016년에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섭취 편의성과 활동성을 내세워 MZ세대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지난해 정관장 제품 중 2030세대에게 가장 많이 팔린 제품

도 홍삼정 에브리타임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30세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정관장의 MZ세대 고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김형숙 KGC인삼공사 브랜드실장은 "정관장을 대표하는 3대 브랜드인 홍삼정과 홍삼톤,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특히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면서 "이번 가정의 달에도 가족 간 건강을 챙기는 선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모님이나 자녀 건강을 위해 정관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편의점서 코로나19 자가 검사 해보세요”

**GS25 생활 안전 플랫폼 역할 수행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2종 판매**

편의점이 코로나19자가 검사키트를 판매하며 생활 안전 플랫폼 역할을 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이하 검사 키트) 2종을 이달 5일 시범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는 GS25, GS수퍼마켓, 알라블라 매장에서 검사 키트 구매가 가능하다.

검사 키트는 15~30분 내에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체외 테스트기다.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한 GS25의 2000여 점포에서 판매된다. 판매하는 상품은 에스디바이옌서사의 'SD'코비드 19자가검사(1입)'과 휴마시스사의 휴마시스)코비드19홈테스트(1입) 두 가지다. 가격은 각각 9000원, 1만원이며 통



모델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GS리테일

신사 할인도 적용된다. 'SD'코비드19자가검사(1입)은 ▲별균 면봉 ▲추출 용액 ▲다바이스 등의 구성품으로 이뤄졌고,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승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내수용 허가 승인을 완료한 제품이다.

사용 방법은 별균 면봉을 통해 비강 안쪽에서 검체(분비물)를 채취한 후 추출 용액과 검체를 혼합한다. 이후 디바

이에 검체액(검체+추출 용액)을 3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30분 내 테스트기에 표시되는 선의 개수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휴마시스)코비드19홈테스트(1입)' 상품도 유사한 단계를 거쳐 감염 가능성 확인이 가능하다. 단, 검사 키트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알아보는 보조적 자가 테스트 의료기기로 호흡기 감염 증상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PCR(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GS25는 14년 '자가 임신 테스트 키트'를 시작으로 '자궁경부암 테스트 키트', '셀프 음주 측정 키트', '반려동물 질병 자가 검사 키트'에 이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까지 선보이며, 국민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플랫폼 역할을 선도해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백 세계 최고등급 '마누카꿀' 팝업 행사

어버이날 프리미엄 선물세트 확대

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멀리 있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도 많아졌다. 지난 명절부터 각광받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번 가정의 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건강식품 선물세트 비중을 작년 4월보다 대폭 늘려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어버이날을 맞아 세계 최고 등급인 250만원짜리 마누카 꿀을 오프라인에서는 국내 최초로 신세계 단독으로 선보인다. 지난달부터 본점에서 팝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9일까지 강남점과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팝업 기간 동안 15% 할인 혜택도 있다.

100년 양봉 노하우를 집대성한 퓨리티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 대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행사를 기념해 준비한 세계 최고 등급 꿀인 UMF 31+는 일조량, 기후, 바람, 숙성 시간까지 특정 조건이 모두 부합되었을 때 극소량만 한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올리닉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20% 할인가로 올리닉 울트라 비타액션 9만4400원, 올리닉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6만8000원 등이 있다.

건강 가전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본점 2층에서는 지난 9월부터 프리미엄 의료기기와 헬스기구 등을 판매하는 '웰니스 습'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세라젠 의료기기 V4 375만원, 테크노집 마이런 러닝머신 560만원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개당 920원 초저가 '한판전복' 판매

롯데마트가 장바구니 부담 없는 한판전복을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온 가족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한판 전복'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한판 전복'은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사이즈의 전복을 선별해 10마리씩 한판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진

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가와 물가 고공행진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완도전복주식회사와 상생 협업을 통해 완도 전복 40톤을 시세 대비 4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전복은 지난 2018년 완도전복주식회사와 협업해 완도에

건립한 스마트계류장과 신선포장실을 활용한 것으로 고객들이 수확 당시의 신선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롯데마트는 오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집에서 '한판 전복(10마리/냉장/국산)'과 '완도 활 전복(대/마리)'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옐로인트 회원이 행사카드(롯데/비씨/KB국민/신한/NH농협/현대/우리/하나/삼성)로 결제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각 9920원과 196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던킨 해피버스데이 도넛 리뉴얼

던킨이 완벽한 랜선파티를 완성해 줄 '해피 버스데이 도넛'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피 버스데이 도넛은 기존 제품 대비 사이즈는 더 커졌고, 도넛 위에는 핑크색 코팅과 드리즐을 듬뿍 뿌린 뒤, 알록달록한 팝핑 캔디를 올려 마치 파티의 폭죽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생일 도넛을 포함하기프티콘은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의 '해피마켓'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해피 버스데이 도넛 2개로



SPC 던킨, '해피 버스데이 도넛'

구성된 '오늘은 너가 주인공', ▲해피 버스데이 도넛과 핫아메리카노를 묶은 '해피 버스데이 콤보'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도넛 6개 구성의 '생일 축하합니다' 세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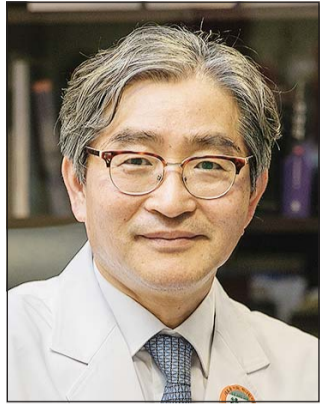
/조효정 기자

“유방암 항호르몬제 효능 높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발견”

이대여성암병원, 국내 특허 획득
국제 학술 저널 ‘메디슨’ 게재 예정
약물 효능 2배 높아지는 효과 확인

이대여성암병원이 유방암 항호르몬제 효능을 높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발견했다.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문병인·안정신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연구 내용은 SCI급 국제 학술 저널인 메디슨에 게재될 예정



문병인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안정신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몸속에 100조개의 미생물과 그에 대한 유전정보를 일컫는다. 마

이크로바이옴의 95% 이상이 장에 살고 있는데 이를 장내 공생균이라고 하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질병과도 관련이 높아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이대여성암병원 문병인·안정신 교수 연구팀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유방암 항호르몬제로 사용되는 약물 타목시펜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발견하기 위해 정상균과 유방암환자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항 호르몬제와 장내공생균 ‘클렙시엘라’의 세포 밖 소포체가 함께 들어갔을 때 약물 효능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문병인 교수(이대여성암병원장)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이 항호르몬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의 효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연구들은 유방암 환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 이화임상시험센터 등과 협력해 마이크로바이옴이 유방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안정신 교수는 “유방암은 식습관,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장내 공생균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면 유방암 예방과 치료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연구 결과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보충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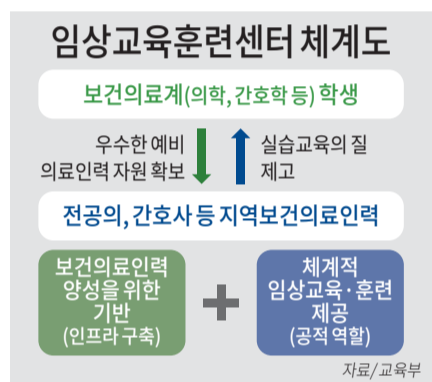
충남대·제주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초코파이 선물세트, 카톡 선물하기서 만나요”

연간 7.6만명 의료인·학생 임상교육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인 교육·훈련

국립대 병원 중 처음으로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된다. 연간 7만6000명의 병원 내외 지역 의료인과 학생이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최초로 설치되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공모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을 포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 보건 의료를 위해 봉사하는 의료인력들의 보건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대상은 전공의뿐 아니라 지역의 의사와 간



호사, 학생 등 보건 의료인력 전반이 해당된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신축 부문에는 충남대병원이 선정돼 2023년까지 187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기능 변경(리모델링) 부문에는 제주대병원이 선정 올해 25억 30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충남대병원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전·충청권 의료진뿐 아니라 전국 의료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연간 6만 7000명의 전공의, 간호사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 지원금 외에 충남대병원의 자체 예산 42억원을 5년간 투입하고 전담 신규 인력을 활용해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대병원은 모의 교육훈련 장비 등을 도입해 지역 의료진 역량 향상을 위해 연간 약 9000명의 의료인 교육에 나선다. 제주대병원은 중증질환 분야에 대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고 환자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해 지역 의료자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족·연인간 특별한 선물로 각광

오리온은 ‘초코파이하우스 선물세트’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했다고 5일 밝혔다.

초코파이하우스 선물세트는 디저트 초코파이 오리지널, 레드벨벳, 카라멜 솔트, 카카오 등 시그니처 플레이버와 최근 2030세대에게 조명 받고 있는 당근케이크, 티라미수, 제주 한라봉을 한 상자에 담은 제품. 패키지는 프리미엄 초코파이를 강조하기 위해 은은한 빨간 무광 색상을 적용했고, 초코파이 이미지를 세련되게 그려 넣었다.

제품도 개별 포장해 취식과 보관을 용이하게 했다. 디저트를 즐기는 2030세대부터 초코파이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초코파이하우스 디저트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를 재해석해 프리미엄 냉장 유통 디저트로 탄생시킨 제품. 차별화된 맛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가족, 연인간 특별한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디저트 초코파이의 대중화를 위해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했다. 현재 전국의 편의점을 비롯해 도곡본점, 압구정점 등 초코파이 하우스 매장과 이커머스 채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리온 직영몰’ ‘쿠팡’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에서 판매 중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교촌F&B-인텔지, 수제맥주 사업 위한 자산 양수도 계약

인수가 120억 수준... 올해 마무리
인텔지, 자연 친화적 양조장 갖춰
교촌,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수제맥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교촌은 지난 4일 인텔지와 수제맥주 제조 사업을 위한 무부형 자산 양수도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양도)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가액은 120억원 수준이며 자산 양수도에 관한 법적 절차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해 하반기에는 수제맥주 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인텔지 수제맥주 사업부는 2018년 론칭한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브루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에 연간 450만리터(L)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양조장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금강산 골든에일, 한라산 위트, 백두산 IPA, 설악산 스타우트 등 총 4종의 수제맥주를 선보였다.

교촌은 이번 인수로 수제맥주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왼쪽)과 조원호 인텔지 대표가 지난 4일 경기도 오산시 교촌 본사에서 수제맥주 제조 사업을 위한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이다. 별도의 추가 설비투자 없이도 이미 생산 경쟁력을 갖춘 양조장과 전국 1280여 개의 교촌치킨 가맹점 인프라로 ‘치맥(치킨+맥주)’ 소비 문화를 빠르게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교촌 측은 최근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 요소로 봤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제맥주 시장은 1180억원으로 최근 3년 만에 2.7배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수제맥주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며 “차별화된 수제맥주 개발과 기존 가맹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가맹점과 본사가 윈윈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진한 초콜릿의 품미 담은 ‘삼양 초코짱구’

칼슘 110mg 함유

삼양식품이 스낵 신제품 ‘삼양 초코짱구’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초코짱구는 짱구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달콤한 초코 스낵이다. 과자 표면에 코코아분말, 밀크초코 등을 입혀 진한 초콜릿의 품미를 느낄 수 있다.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손가락에 끼우거나 초코짱구 속을 아이스크림으로 채우는 등 먹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

패키지에는 녹색인증받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으며,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주인공 ‘짱구’ 캐릭터를 넣어 친근감을 더했다. 소비자 권장 가격은 1500원이다. /조효정 기자

스파오, 가정의 달 역대급 상품 할인 행사

‘패밀리데이’ 프로모션

이랜드윌드가 운영하는 SPA 브랜드 스파오가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패밀리데이 전용 쿠폰팩과 역대급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패밀리데이 쿠폰팩은 스파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식 홈페이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게는 구매 금액대별 7000

원, 1만원 할인 쿠폰 등 총 4장이 제공되며, 스파오 공식 홈페이지 신규 가입 고객은 15% 할인 쿠폰 5장과 첫 구매 금액 10%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쿠팡 1+1 ▲봄 아우터 최대 4만원 할인 ▲300여 종 상품 최대 56%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을 통해 데님, 슬랙스, 봄 아우터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스파오 패밀리데이는 전국 스파오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열린다.

/원은미 기자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1 QS 아시아 대학평가
TOP 1%

2020 Leiden 세계대학평가
3년 연속 국내 일반대학 1위

2021 Times 세계대학평가
국내 9위



세종대학교

대한민국 군머로 불리는 '근대적 軍감동회로'

(대한민국 군대)



우리는행, 어린이날 맞아 직장어린이집에 선물

우리는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비대면으로 기념선물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는행은 매년 어린이날에 행사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기념선물을 증정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선물을 증정했다. /우리는행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대한민국 군대가 첨단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장병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신세대들로부터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머'로 불리며 비아냥감의 대상이 됐다.

머하민국 군머는 '대한민국 군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일부 글꼴에 따라서는 '대'를 이루는 한글 자음 'ㄷ'과 모음 'ㅐ'가 '머'로 보일 수 있는데, 신세대 장병들은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에만 시선이 잡혀있는 군수뇌부를 향해 "재들 뉘나"라는 조소를 보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국방부도 '국밥부'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뭐든 실패하고 말아먹는다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부실한 급식', '열악한 격리시설', '간부의 부조리 및 가혹 행위' 등 일선 장병의 고충을 공론화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다.

육대전이 이 같은 활약을 하게 된 것은 군의 소통채널인 '소원수리함'과 '국방헬프콜'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과 시간 외에 사용이 허용된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제를 빠르게 밝히고 해결책이 나오도록 이끄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구약습'에 젖어 '근대화군(軍)감동회로'를 돌리는 일부 군간부들은 "병의 휴대전화사용이 문제를 키웠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사용이 없었던 시절은 문제가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그시절 중상당 기간을 장교로 복

무해 본 기자의 경험으로는 '아니올시다'란 결론이다. 그 시절은 캐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쉬웠을 뿐이다. 변해가는 현실과 시대를 부정했던 구한말 '위정척사파'와 무엇이 다른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다 삭제된 '돈은 많지만 어떠한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군대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풍자글은 '현대판 위정척사파'를 신랄하게 비평했다. 기고자는 결정권자들이 전투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 트렌드만 따라가다 보니 어색한 연출사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도 안 된 장비(위리어플랫폼, 경항공모함 등)를 가지고 홍보물부터 제작하고, 돈벌이 오르면 당장 필요한 전력지원물자와 인력개선보다 큰거 한탕하려는 패시브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부대의 각종 소요는 넘치는데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 군의 중간관리자급이 죽어나간다"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이는 체제유지만 생각하는 행정적 군대의 현실이다. 현실은 좋은 나쁜 노래로 만들어진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육군, we 육군'이라는 신군가를 공개하면서 육군의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관계자는 해군은 경함모, 공군은 우주군 등 각군의 비전을 제시한 군가를 내세운 만큼 육군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다. 이 군가에도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위리어플랫폼과 아미타이거 등이 가사에 실려있었다.

이는 아프카니스탄에 끌려갔던 소련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했다. 아프칸 침공 당시, 소련군에는 군가보다 공산당이 탄압하던 락큰롤 형태의 '사가(私歌)'가 애창됐다. 사가밴드 중에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공수부대원들이 결성한 '블루베레'도 있었다. 블루베레는 뼈를 때릴 정도로 소련군과 소련사회를 비판했다. 군과 사회의 수뇌들이여, 블루베레의 '철학쟁이'란 곡을 들어 보시길 바란다. /captinm@



손보협-서울성모병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맞손

손해보험협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보협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신용회복위원회)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왼쪽)이 김용식 서울성모병원 병원장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DGB대구은행, 지역 아동에게 사랑의 빵 나눔행사

DGB대구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지역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만든 빵은 대구 서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광채 DGB사회공헌홍보부장(왼쪽 첫 번째), 서문선 대구은행 부행장(오른쪽 첫 번째), 임직원 및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중진공,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었다. '사시섬'을 통해 지역상생과 협력에 앞장서는 동시에 직원들이 '섬택(섬+재택)' 근무를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강석주 통영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고상훈 두미북구마을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시몬스 '시몬스 갤러리 용인구성점' 오픈

시몬스가 경기 용인시 마북동에 '시몬스 갤러리 용인구성점'을 열었다. 시몬스 갤러리 용인구성점은 미니멀한 인테리어에 자연채광의 전면 통유리가 더해져 마치 휴양지의 리조트에 들른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몬스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왼쪽 네번째)과 현장 임직원, 협력사 및 근로자 대표 등이 중대재해 ZERO 선포식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화건설

한화건설, '중대재해 제로' 다짐

전국 57개 현장에서 결의 협력업체도 동참 선언

한화건설은 전국 모든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중대재해 예방을 결의하기 위한 '중대재해 ZERO(제로) 선포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 전국 57개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한화건설 최광호 사장과 김효진 건설부문장, 김영한 재무실장을 비롯해 각 사업본부장과 안전을 총괄하는 CSO(Chief Safety Officer) 등이 현장별로 참석했다.

각 현장에서는 최광호 사장을 비롯한 현장 대표자가 '2021년 중대재해 ZERO'를 선포했으며 이어서 협

력업체 대표가 동참을 선언했다. 또한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가 함께 중대재해 ZERO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대형 결의문 서약판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건설은 이번 선포문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기업경영의 첫째 지표로 삼고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고위험 작업에 'SMART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CCTV'를 활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예측 시 근로자 누구나 작업 중지 요청 및 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김이경,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 기부

(중앙대 사범대학장)

'김이경 꿈 장학기금' 조성 매 학기 4명에 장학금 전달

중앙대학교는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이경 교육학과 교수가 4일 서울캠퍼스 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 총 1억원에 달하는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열린 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서 교육학과 4학년 김지수·서예은 학생과 2학년 오종현·이현지 학생이 각각 장학금을 받았다. '김이경 꿈 장학기금'이란 이름으로 조성된 이번 장학기금은 매 학기 학생 4

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이경 학장은 이전에도 중앙대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선보여 왔다. 임용고시반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교육학과 발전기금·장학기금, CAU 한 장 기부 등 재임기간 중 꾸준히 기부해 매진한 결과 현재까지 1억1200만원 이상을 대학에 기부한 상태다.

김이경 학장은 이화여대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행정학 석사,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현진 기자 lhj@



중앙대학교 김이경 교수(왼쪽 다섯번째)와 박상규 총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4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장학증서 전달식'에서 1억원의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앙대

인사

◆국세청 ◇서기관승진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백승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민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이규성 △국세청 법령해석과 임경환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미애 △국세청 소득세과 김일환 △국세청 법인세과 임형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국세청 조사1과 한상현 △국세청 세원정보과 안형태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정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

세청 조사2과 조사2과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 조사3과 이철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장재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안동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2과 박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과 조사관리과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과 조사2과 송명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관리과 장영숙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장영숙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관리과 박민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과 조사2과장 정규진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보호팀 손유승

부음

▲최성운(SK증권 구조화본부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1시30분,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7일 오전 8시, 051-893-4444
▲오창석(마라톤 국가대표 코치)씨 별세 = 5일, 청양 정산 미당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041-942-4447
▲김명순씨 별세, 박경중(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박경환(로움코리아계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영동병원장례식장(충북 영동) 특실 5빈소, 발인 7일 오

전 7시30분
▲박관출씨 별세·박상일씨(롯데월드 영업본부장 상무) 부친상 = 5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2225-1000
▲임석빈씨 별세, 임동혁·임승혜(아리따움 사가정역점대표)·임건혁(선석건설상무)·임순혁·임한희(아시아투데이 부국장)·임은형·임나영씨 부친상 = 4일 오후 2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도 하남 선영, (02)2210-3427
▲박상훈(쌍용건설 공공영업팀 차장)씨 부친상 =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053)620-4647

20~30분 음성 데이터만으로 진짜 같은 AI 목소리 ‘뚝딱’

적은 데이터로 AI 모델 제작 가능
화냄 등 감정연기 가능한 AI 성우
기술 고도화에 지속적 투자 단행

인공지능(AI) 솔루션이 고도화되면서 짧은 분량의 음성·영상 데이터만으로 ‘진짜 사람 같은’ AI 제작이 가능해졌다.

20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내 영상에 AI로 연예인의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고, 1시간 영상 데이터만 있다면 AI 버추얼휴먼(가상인간) 영상도 뚝딱 만들 수 있다. 특히,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움직임이 필요한 AI 아나운서조차도 5시간 만에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다.

AI 음성 분야의 대표기업인 라이언로켓과 휴멜로는 20~30분의 짧은 음성 데이터로 AI 목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음성합성 기술을 선보였으며, AI 아나운서 솔루션 기업인 머니브레인과 이스트소프트는 5시간 분량의 데이터만으로 AI 아나운서 영상을 제작해 초기에 제작한 AI 아나운서와 비교해 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이들 AI 기업들은 앞으로 AI 아나운서 영상을 1시간 만에 제작하고, AI 영상 합성 시간도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라이언로켓은 딥러닝 기반의 음성합성·영상합성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적은 데이터로 AI 모델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언로켓측은 “목소리의 경우, 20분 분량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AI를 만들 수 있으며, 인물 영상은 1시간의 영



라이언로켓이 AI영상합성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 /라이언로켓 유튜브 캡처

상 데이터만 있다면 실제 인물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AI 감사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만들어진 AI가 실제 사람이 촬영한 것만큼 자연스러움(MOS)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라이언로켓을 설립한 정승환·박준형·문형준 공동 창업자는 최근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 중 ‘기술 사업’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라이언로켓은 또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아 최근 우리은행과 AI 버추얼 휴먼의 은행원(뱅크)을 개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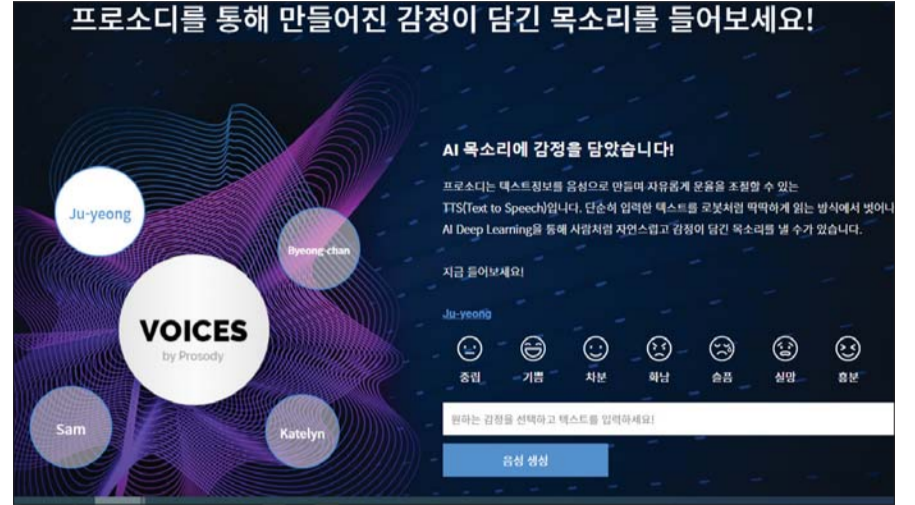
AI뱅크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 합성을 통해 특정인물의 외모, 자세 및 목소리를 반영해 가상의 은행원을 구현하는 것으로, 고객의 음성을 분석하고 이해해 실제 은행원이 상담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음성합성 AI 전문기업인 휴멜로도 기존 음성합성 기술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녹음이 필요했지만, 녹음시간

을 30분으로 크게 단축시킨 AI 성우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 이에 따라 일정이 바쁜 유명인들도 짧은 시간 만 내면 AI 기술로 오디오북 녹음이나 더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휴멜로의 ‘프로소디’는 감정연기가 가능한 AI 성우로, 기존 TTS(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은 억양이 없는 어색한 기계음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었지만, 화냄, 흥분, 즐거움, 차분함, 두려움, 슬픔 등 감정을 선택하면 실제 성우와 같이 감정을 살려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다. 프로소디는 이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래퍼 슬리피와 함께 ‘엠 아이 포 리어’라는 노래의 랩을 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프로소디’를 시범 삼아 사용해볼 수 있도록 월 4000자 이내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2만 4000자 이내 개인영상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 월 2만4900원을, 월 12만자 이내 프로 서비스에 대해 9만9000원을 책정했으며, 런칭 기념 반 값 특별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휴멜로의 AI 성우 서비스 ‘프로소디’. /휴멜로

이와 함께 최근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AI 아나운서도 1년 만에 제작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AI 아나운서 대표기업인 머니브레인은 2019년 말 영상 및 음성데이터를 학습시켜 AI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걸리던 것을 현재는 더 짧은 분량의 데이터만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해 5시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또 영상 해상도를 개선해 사람 크기의 대화면 키오스크에서도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AI 모델이 대기상태에서 제스처나 표정, 몸 흔들림 등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머니브레인 관계자는 “향후 1~2시간 내로 촬영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별도 표식이 없다면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AI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4월 YTN을 통해 처음 AI 아나운서를 선보인 이스트소프트는 AI 아나운서 얼굴 및 브리핑 영상이 전처리

된 데이터 기준 약 5시간 분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텍스트 기사를 AI 아나운서를 활용해 뉴스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텍스트 길이와 같아, 30초 길이의 텍스트라면 바로 30초 후에 뉴스 동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적은 데이터 만을 학습시켜 AI를 개발해 제작 시간을 단축하려는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딥러닝이 대표적인 기계 학습 방식으로 많은 양의 학습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 최근 주목받는 뉴로 심볼릭 방식은 기계학습 방식보다 더 적은 데이터만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뉴로-심볼릭 기술에 의존한다면 영상·음성 등 데이터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고, 학습은 물론 논리까지 결합해 딥러닝 방식 AI 기술이 ‘설명 가능하지 않은 블랙박스’라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AI 기반 화상심도 예측기기’, GMP 인증 획득

파인헬스케어 의료기기 ‘스키넥스’
피부 상처 상태, 인공지능이 진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파인헬스케어가 자사의 화상심도 측정 의료기기인 ‘Skinex(스키넥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파인헬스케어의 스킨넥스는 ‘피부(Skin)와 X-ray의 합성어’로 그동안 의사의 육안으로 평가하던 피부 상처의 상태를 인공지능이 판단해 의사의 진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특히 화상 상처에 대한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상처의 심도를 예측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파인헬스케어는 피부 전문의사와 인

공지능 전문가가 포함된 사내 피부 이미징 빅데이터 전담 연구팀을 중심으로 다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피부 이미징 진단 AI인 스킨넥스를 고도화해 이번 GMP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GMP 인증 과정의 기획을 전담한 파인헬스케어 연구전략팀 이형래 팀장은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의 의료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숙련된 의료진의 지역적 편중, 절대적인 의료 인력 부족,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긴 소요시간, 국가간 시차 및 언어 등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들로 해결이 요원했던 의료 사각지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

다.

스키넥스는 파인헬스케어에서 개발해온 모바일 및 PC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의료 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해 의료기관에서는 물론,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즉각적인 사용자 접근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선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잡하고 사용이 어려웠던 종전의 의료기기들과 비교해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기반으로 제작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안팎의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파인헬스케어는 또 분석·예측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를 확장, 현재 화상에 이어 중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서 특히 유병률이 높은 욕창 질환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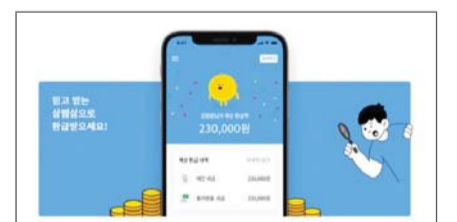
‘삼점삼’, 종소세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AI, 예상 환급금액 안내

인공지능(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엔빌런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삼점삼’ 정기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대면으로만 진행돼,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창구가 제공되지 않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필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쌓인 미환급 세금까지 찾아주는 ‘삼점삼’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삼점삼은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돌려받을 환급 금액 안내와 함께 계좌 환급 처리까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제공되며,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 AI가 알려주는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보다 더 쉽고 편리해진 이용자 프로세스도 주목된다. 세무대리인 수입동의가 카카오킴편인증으로 가능하며, 내 소득은 정확히 얼마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세금이 떼였는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성을 높였다.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삼점삼 사이트 안에서 바로 재설정 가능해 손쉬운 이용을 돕는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론호도·갈라치기” 청년정치인들, 젠더논쟁 이준석 비판 /사진 뉴스스
▲ 이재명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천만원”...野 “허경영인가”

▲ 송영길 “출산을 낳는데 아이들 못 키우면 도리야냐”
▲ 美 국방차관보 대행 “北 생화학·핵무기에 대비...한국과 협력”



▲ 정치권, 어린이날 맞아...“보호종료 아동 지원” “학대 근절” /사진 뉴스스
▲ 코로나19 백신 아나필락시스 진단법 정부 지원금·지자체 보험금 중복 수령



[산업] 잘 나가는 기아 K8 하이브리드 1리터로 18km달린다 06



Life

[라이프] KGC인삼공사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홍삼제품 너



코로나 사망자 23% 요양시설서 감염... 전문 인력 배치해야

노인요양시설 13곳서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 현실성 결여 등 문제점 감염병 예방 교육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 중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시설이었던 경우가 전체의 약 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방역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달 2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사망자 451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시설이었던 사례가 전체의 22.8% (103명)로 1위였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과제' 정책리포트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시내 노인요양시설 205곳 중 13곳(6.3%)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발 확진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6명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르신 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시스

수는 입소자 120명, 종사자 65명 등 총 185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이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곳 중 92%가 종사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3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

던 곳은 4곳이었고, 이 중 3곳은 종사자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미리 확인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1명 나온 시설이 4곳(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명 이상, 2~5명이 각 23.1%, 21~30명이 15.4%, 6~10명이 7.7%로 그다음이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방역 및 대응지침의 시의성과 현실성 결여 ▲감염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창구 부재 ▲감염병 예방교육 체계 미확립 ▲서류 기반의 형식적·소극적 모니터링 ▲돌봄 대상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책 미비 ▲방역 물품과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현 감염 대응 체계는) 서울시→자치구→노인요양시설로의 대응 지침 하달에 초점을 맞춘 일방향이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이뤄져 있다"며 "요양시설의 애로사항과 방역지침에 관한 질문 대응 등 감염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창구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없이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현장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노인요양시설 방역 담당자들을 상대로 비대면 방역과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했

으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교육 체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노인요양시설 전문 인력 확충,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시설 운영 정상화 및 모니터링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감염증상을 감별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간호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 노인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요양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시범사업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방문요양기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상시에 대비할 요양보호사 인력을 늘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강화해 유류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돌봄 인력으로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보행로 확 늘렸다

보행공간 서울광장 면적의 2배 도보해설관광 신설 등 콘텐츠 확대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송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총 길이 1.55km)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대로 일대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12m로 넓히는 공사를 작년 7월부터 시작해 9개월 만에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차도가 사라진 자리엔 서울광장(6449㎡)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후 송례문 일대. /서울시

이 1만3950㎡ 규모로 만들어졌다. 세종대로 전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도 새로

게 생겼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광화문광장, 덕수궁, 송례문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숲길 도보해설관광 코스를 신설하는 등 관광 콘텐츠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역의 쇼핑과 먹거리 상권, 문화·관광을 보행로 연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120억 성과

코로나에도 매출 21% 증가 신규 입주기업 16개사 모집

서울시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한해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9년(99억원)과 비교해 21% 증가한 수치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전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조성해 개관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애니메이션, 캐

릭터, 만화, 영화 등 우수 문화콘텐츠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과 예비 창작자)이 입주해 비즈니스를 지원받고 있다.

시는 입주기업에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 집중 컨설팅, 마케팅·재무·노무 등 경영 자문,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신규 입주기업 16개사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소재지가 서울인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및 창작자면 지원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어르신 8000명에 디지털 교육

'어디나 지원단' 100명 가동

서울시는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디나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어디나(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은 서울 전역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에서 어르신 강사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노노(老老)케어' 방

식의 교육 프로젝트다. 시는 어디나 지원단 사업을 통해 올해 어르신 8000명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공지능 로봇 '리쿠'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업 ▲무인기기(키오스크) 체험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이달부터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 4000명을 대상으로 리쿠를 활용한

교통정보 찾기, 열차 예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움터로 선정된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집 근처 생활SOC 140곳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육에 나선다.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부터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코딩 교육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생활 곳곳에 스며든 무인기기 이용법을 익힐 수 있는 키오스크 체험존도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복지시설 46곳에 체험용 기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내 50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2 | 해질 / 19:26

5월 6일 (木) 음력 : 3월 25일

수도권 날씨 10~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22, 동두천 7/23, 가평 4/22, 파주 6/21, 서울 10/23, 양평 6/24, 용인 10/23, 수원 10/23, 인천 12/20, 평택 6/23, 백령도 11/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현대차, 북미서 싼타페 등 39만대 리콜...엔진 화재 가능성 ▲파우치 "아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진 뉴스시스

▲"미 국무장관, 中 주최 안보리 고위급 회의 참석 예정" ▲엘런 "과열 막기 위해 금리 올라야 할 수도"...파장 일자 진화



▲미 남부 앨라배마 등 폭풍우와 돌발 홍수로 '비상사태' ▲美 뉴욕시, 올해 아시아계 증오 범죄 5배 급증 /사진 뉴스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K텔레콤의 AI 서비스가 새로운 생활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집과
당신의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는 서비스

누군가에겐 자신을 먼저 챙겨주는 가족이자
누군가에겐 다정한 친구이고 말벗

내 취향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는 플랫폼부터
필요로 하기 전에 알아서 돕는 기술까지

모든 순간 AI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모두의 생활을 위해
SK텔레콤은 당신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